

십대와 마을배움 Storytelling Book

십만원 프로젝트 이야기편1



십만원
내맘대로
썼습니다

십만원
내맘대로
썼습니다

십만원
내맘대로
썼습니다



십대와 마을배움 Storytelling Book

십만원 프로젝트 이야기편1

십만원
내맘대로
썼습니다

십만원
내맘대로
썼습니다

십만원
내맘대로
썼습니다

여는 말

간지러운 곳을 서로 긁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회가 아니기에 공부만 아니면 얼마만이 살길임은 이미 정해진 삶의 정석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지난여름, 당당한 삶을 실험하려는 십대들이 하나들 뭉치기 시작했고, 단 돈 십만원으로도 실패할 권리, 하고 싶은 것을 실험해볼 권리를 찾아 나선 십대들이 움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십대들의 십만원 프로젝트’는 학업이나 취업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실험하고 싶은 것을 시도하고 실패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첫 모집공모가 나갔던 지난 7월, 27개 팀이 신청했고 그 중 12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 2팀은 중간에 스스로 자진포기를 하였습니다. 12개팀 모든 친구에게 ‘시도하고 실패할 권리증서’ 수여식을 시작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자해를 하는 십대들을 바라보는 편견을 깨고 싶어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만들겠다는 16살 친구,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 가는 길에 잠시 서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을 무작정 스케치하여 전시를 해보겠다는 17살 친구, 길고양이들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유튜브를 만들겠다는 19살 친구,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자신만의 옷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친구 16살 친구들...

성적과 진로의 무게로 이미 ‘피로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십대들의 새로운 실험과 실패를 응원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책 속엔 거창한 이야기나 대단한 기획력의 비법이 담겨져 있진 않습니다. 이제 막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한 활동가의 시선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함 투성이며, 일단 해봐야 아는 명칭함도 다분하기에.. 그저 좌충우돌하며 겪었던 경험, 고민, 시도과정, 아이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 속 사유, 함께 활동을 만들어가는 동료들의 이야기 등 아이들과 똑같이 실험하고 시도했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십대들이 좀 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면, 특히 이제 막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한 활동가라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벽을 만나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활동가의 이야기가 서로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짜질하고 사소하지만 중요했던..
아이들과 활동가의 아름다운 실패의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십만원 프로젝트 이야기 편은 마을배움터 십대와 배움 담당자인
활동가(나 - 고민정)가 직접 기록과 정리를 했습니다.

스토리 길잡이

Story 1 십만원 프로젝트의 발칙한 서사

STORY 1에서는 ‘십만원 프로젝트’가 탄생하기까지 담당 활동가가 겪었던 경험과 고민을 담았습니다.

4년 전 십대문화기획단과 함께 마을을 만나고, 축제를 만들며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배움이 왜 중요한지 느꼈던 이야기, 점점 전해지는 십대의 무기력을 체감하며 고민했던 이야기,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고민했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Story 2 십만원 프로젝트 간편하게 들춰보기

STORY 2에서는 처음 시작한 ‘십만원 프로젝트’ 사업계획서에 작성했던 의도와 전체 진행 과정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tory 3 십만원 프로젝트 자세히 담아보기

STORY 3에서는 십만원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의 자세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함께 하는 동료들과 나눴던 논의와 토론의 이야기, 모집 홍보를 진행하며 겪었던 고민과 시도, 참여하는 아이들이 다 같이 모였던 첫 날, 프로젝트 각 짝꿍(멘토)들의 선을 담은 이야기, 마무리 공유파티까지 3장은 활동가와 아이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는 즐거움이 있을 듯합니다.

스토리 흐름

여는말

간지러운 곳을 서로 긁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007

Story 1 십만원 프로젝트의 발칙한 서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배움	012
시도해보지도 않는다. '무기력' '나는 이미 졌다'고 말하는 아이들	017
'느슨하게' 다가가기	022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어주어야 한다	026

Story 2 십만원 프로젝트 간편하게 들춰보기

2019년 십만원 프로젝트 목적	031
2019년 십만원 프로젝트 흐름 한눈에 보기	033

Story 3 십만원 프로젝트 자세히 담아보기

우리는 어딜 향해 걸어 가야할까?	036
"자극적" 모집홍보 정말 좋은걸까?	047
오리엔테이션이 아닌 소중한 첫 '만남'이 되길	069
짜꿍들의 이야기	082
아이들의 실험보고서	100
주인공이 되어 나의 이야기 공유하기	115
2020년 청소년과 마을배움, 좌충우돌은 계속됩니다	135

에필로그	139
------	-----

Story 1

십만원 프로젝트의 발칙한 서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배움

"일상이 지루한 침대!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침대!
자기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은 침대!! 모여라!!!"



일상이 지루하지 않아?

함께 담년을 보낸 뒤 니가 알게 될 호칭
작은형(아들)을 부를 지어
남자형(아들)을 부를 지어
남자형(아들)을 부를 지어
남자형(아들)을 부를 지어
남자형(아들)을 부를 지어

나이름

연락처를 원해서 인사는 저지르고 보는거야. 네방처럼.

4월 17일 까지 010-5566-7775 로 연락해
혹시 궁금해 마지않을 QR코드 찍어봐
문자는만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메이클살이방목회는 하루하루가 지쳐온 여러분가라문기
테프자니우메켄나남은죽음까지그새로운사람을만나
고싶어되어서이렇게말하고싶어서모르겠는데정신수
살말을으면프라우가죽먹지나가고는문밖으로지않은감
으로뒤척거리다가벽보며명확히나아이제인생인가하며
살후생계별비전설계제트리는사라진것처럼안한가지

클리어 베어는 모집 4/17까지
심대문화기획단 문작집

입에서 단내나게 할 짓들

리튬단 염바인 노예 발로 똥대 스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고통을 느끼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아름답게 만나기
가끔 간 통채로 공격적 기록 (캠프)
나를 나이만큼 오래된 육체 '주력' 기록
어 모든 것들을 자라게끔 담아줄 생거거기

그리고, 오직 기획단만 가질수 있는 특혜
기획단 전용 카, 기획단 전용 벡, 살의 돌변자, 우월한 불사시간

4년 ~ 5년 전. 대학생 시절 학교보단 요상한 아이들을 만나는 것에 매료되었다. 그 이름은 바로 '십대문화기획단'. 이름도 참 멋지다. 스스로 문화를 기획하는 십대인 셈이다. 자신의 문화를 스스로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것이며 그 문화를 이곳저곳에 전이시키고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자기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십대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십대문화기획단의 가장 큰 모토였다.

별 것 아닌 손바닥만한 홍보물에 이끌려 혼자서 찾아오기도 하고, 친구를 데려오기도 하며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금세 모였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래요!!”라며 눈이 반짝이는 십대들이었다. 일상이 지루하거나, 무언가 변화하고 싶거나, 무언가를 찾고 싶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 아이들은 학교 내에서 전교 회장을 하는 목소리 큰 아이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까지 참 다양했다.



“나는 그저 생각은 많이 하나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이다.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귀찮으면 안하고 나태하기 그지 없다. 그런 내가 너무 별로라고 느껴진다. 꿈은 막연한 상상뿐이다. 하고 싶은게 없기도 하다. 그저 답답한 마음에 찾아온 곳이 십대문화기획단이다.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하는지 고민만 하는 모습이 불안하다. 무엇이랄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다.”

“조금만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관두거나 손을 대지 않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로 나의 꿈에 대해서도 그렇다. 아마도 나 자신을 잘 모르고 모든 것에 확신이 서지 않아서 주저하는 듯하다. 기획단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기획단을 해보고 싶다.”

아이들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은 ‘나다운’ 일상을 찾기 위해 무언가라도 해보아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모인 아이들과 무엇이 되고 싶은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찾아가기 위한 1년간의 여정을 함께했다.

이주여성, 이주노동, 이슬람 등 평소에 관심이 없던 사람에 관해 공부하고 만나보며 ‘지구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에 대해 고민했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만나기도 했고, 함께 밤낮없이 매일 작당 모의를 하며 직접 축제 기획하기도 했고, 평소에 걷기 싫어하던 아이들과 걷기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모든 과정은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기획하고 만나고 정리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풀려졌다.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기획했다는 의미는 모든 과정을 다 알아서 했다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자기가 보내고 있는 시간에 대해 고민하고 표현하며 자신만의 이유와 선택을 만들어갔다는 것이다.

1년의 과정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얻었는지 짧은 문장 안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단언컨대 말할 수 있는 건 ‘사람’에 대한 생각과 ‘나’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좋은 사람’,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몸의 감각으로 느꼈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스스로 만들었던 일들이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1년간의 활동으로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가장 큰 발견이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행복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내년은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성장했는지 뚜렷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나는 성장했다.”

- 기획단 1년을 마무리 한 17살 김소영 이야기-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며 살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내가 꿈꾸는 올해의 나는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천천히 길을 나아가는 것이다. 1년간 참 많이 흔들렸지만 함께 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었기에 잘 버텨낸 것 같다. 올해도 흔들리지 않고 노력해보고 싶다.

- 기획단 1년을 마무리 한 19살 신원희 이야기-

1년간 아이들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그 만남을 어떻게 더 귀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었다. 만남이 쌓이고,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이 쌓이고, 함께 하는 즐거움이 쌓였다. 그 곁엔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만든 사람은 항상 ‘나 자신’이었다. 그렇게 아이들은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갈 힘을 스스로 발견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찾지 못했더라도 무언가를 시도해볼 단단한 마음을 얻기도 했다. 그렇게 아이들은 온전한 나로써 살아갈 씨앗이 심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난 과거 이야기를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이유는 스스로 만드는 시간 속에 배움이 있다는 것과 그 곁에 항상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볼래!” 라고 들어대는 아이들을 찾기 쉽지 않다. “그냥 즐거우니까!! 그거면 충분해!”라며 단순하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지 않다.

3년 전쯤부터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려주지 않는 자기 능동적 활동에 주저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흥미를 느낀다 하더라도 선뜻 나서질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졌다.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는 십대를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여 1년을 활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

부끄럽지만, 애들을 찾아보겠다며 가볍게 경험해보는 ‘맛보기학교’를 야심 차게 홍보해보았지만 모집 인원이 0명이었다. 가볍게 한번 만나는 것도 어렵고,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도 어려운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졌다. 그렇다고 십대를 만나는데 있어 일상성을 내려놓을 순 없고...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 되는 듯했다.

아이들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배움을 만들고, 스스로 배움을 나누고, 스스로 일상을 채워가는 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한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음은 분명하다.

시도해보지도 않는다. ‘무기력’ ‘나는 이미 졌다’고 말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마주해보아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친한 십대들을 연령과 관심 분야에 따라 FGI라는 거창한 이름을 걸고 삼삼오오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22명 적은 수의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이기에 모든 십대가 이렇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심히 뱉은 아이들의 말을 아무렇지 않은 듯 넘겨버릴 수가 없었다.



질문자: 일상을 조금 깨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조금씩이라도 시도해보면 되잖아.

십대1: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딱히 지금의 반복되는 일상에 큰 불만은 없어요. 학원가면 친구 있고 집 가면 부모님도 있고 너무 놀기만 하면 재미없지 않을까요?

십대2: 언젠가부터 그냥 당연하듯이 공부한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칭찬받고 싶어서 공부 했다 보다 일단 (공부를) 잘해보야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질문자: 진짜 공부를 잘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

십대1: 그냥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십대2: 그리고 공부는 재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할 만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걸 판단할 때 사실 성적만 보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십대1: 그리고 외부의 시선? 공부를 못하면 무시하잖아요. 무시 받고 싶지 않아요.

십대3: 솔직히 좋지 못한 특성화고나 공부를 못하는 경우인 애들은 우리는 이미 아래에 있다고 마음속 어딘가에 전제된 사람인 것 같아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이 깨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바꿔야 하는데 다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우니까.

십대4: 어릴 적부터 그런 소리 많이 들어왔으니까. 주변의 시선도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조금 별난 짓을 하면 그랬어요. 그 때부터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안 좋게 보겠지?’ 라는 생각이 저를 꼭 조이는 듯해요.

많은 십대들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말을 자주 쓰곤 했다. ‘이미 끝났다.’, ‘이미 답은 정해져있다.’, ‘이미 나는 졌다.’, ‘네가 원하는대로 나는 답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지만 이에 대해 큰 불만이 없다는 것이 더 무서운 사실이다. 자발적으로 답정너대로 대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아이들은 주어진 대로,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그 내면에는 깊은 우울감, 열등감, 무기력들이 피어있었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생각은 다음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주지 않고, 다른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가로막는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만나본 적도, 그 삶이 만족스러워 보이는 어른의 모습을 본적도, 나의 존재를 존중받았던 경험도 너무나도 적었다. 아이들은 ‘이미 졌다’의 무기력과 반대되는 경험들이 필요하다. 작더라도 한 번쯤은 답정너의 잣대를 무시해보는 경험, 내가 하고픈 것을 있는 힘껏 지지받고 응원받아보는 경험, 내 주변 또래 친구가 스스로 해보고 싶은 걸 하고 있고 서로를 응원해보는 경험.. 등등 이런 경험 말이다.

그러한 경험은 아주 조금씩 조금씩 답을 내가 써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지 않을까?



질문자: 살면서 필요한 배움은 어떤 것이 있어?

심대1 : 배려요.

심대2 : 기계 고치는 거요. 스마트폰 고치고 싶어요. 이것 외에도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걸 배우고 싶어요.

심대1 : 맞아. 풍차 만드는 거 이런 걸 왜 배우는 지 모르겠어요.

심대3 : 저는 옷 만드는 거요. 제가 원하는 옷을 직접 만들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친언니랑 나중에 꿈이 없으면 옷 장사 하기로 했어요.

심대1 : 저는 노래하는 게 좋은데 학원이 너무 비싸요. 엄마가 음악학원 다닐 거면 공부 학원을 다니지 말래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하겠어요. 학원 안다니면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심대2 : 지금 일상의 패턴을 깨보는 건 너무 큰 도전이에요. 새로운 시도가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때 이미 너무 늦어졌을거예요. 늦어진 만큼 따라갈 자신이 없어요.

심대3 : 공부 말고 다른 걸 선택하고 싶긴한데 선택지도 별로 없어요.

심대4 : 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던지 이런 사회에서 심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이야기가 배움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눈 아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다. 대안 교육의 경험이 있거나 사회활동에 실제적인 실천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아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다. 또,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학교와 학원에서 알려주는 배움이 줄 세우기 교육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다들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네가 무얼 선택하든 응원하겠다고 지지해준다고 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세상이 자신에게 겨누는 하나의 잣대. 오로지 한 가지의 길만 있는 듯한 잣대에 수긍하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했다. 스스로 다른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고, 다른 선택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미래, 아무도 알려준 적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싸울 자신이 없기 때문이었다. 결국, 가진 욕구를 참는 것, 지금의 상황을 잘 인내하는 것이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참는 게 미덕이 되었고, 참는 게 잘살아가는 방법의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언어가 다를 뿐 내 일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 좀 더 나답게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것,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든든한 어른이 있는 것, 나를 좀 더 따뜻하게 믿어줄 사람이 있는걸 원하고 있음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진짜 배운다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그럼에도 욕구와는 다른 선택을 하는 자기모순을 전반적으로 보였다.

그 두려움을 깨볼 수 있는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가며 자기 속도대로 자기 욕구에 충실해 보는 경험이 필요해 보인다. 아이들의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응원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만든 경험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느슨하게’ 다가가기



아이들과 조금 집중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숨겨진 아이들의 욕망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보다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 잡혀 있는 무기력과 불안은 어떻게 즐겁게 이겨내 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졌다.

모르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살아있는 날 것의 언어를 들으니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무기력과 불안이 만져졌다. 아이들은 일상 곳곳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 움짱 달짝 못 하게 만든 것과 함께 숨을 쉬고 있었다.

불안정한 내면, 자기모순(욕구와는 다른 선택을 하는), 적극적 참여에 대한 두려움이나 귀찮음, 자기 불안감, 배움의 욕구 상실 등은 일반적으로 십대에게 보여지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는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학교 수업, 학교 선생님, 친구들, 학원수업, 학원 선생님, 부모님 등 변하지 않는 현실을 조금씩 변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바꿔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청소년 ‘스스로 당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힘은 단위사업이나 단발적 프로그램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상적 과정 속으로 스며들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들이 있다. 청소년은 실제로 시간이 정말 없다. 소위 말하는 ‘빡센 학원’을 제 발로 찾아 가고 있는 아이들이다. 학원숙제의 양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정말 충격 그 자체이다. 숙제를 소화하기 위해 틈틈이 계속 숙제를 해야 한다. 그로 인해 시간이 생긴다면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노는 것 이외에 무언가를 ‘한다’는 건 귀찮은 일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진학과 취업에 직접 연결된 배움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어주는 것에 두려움이 같이 생겨난다.



‘아, 계속 여기 오면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미래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공부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즐겁게 한데 이런 활동이 성적을 올려주거나

나중에 취업에 도움이 되나?’

그렇기에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마을배움은 청소년에게 더 놀이처럼 다가가야 하고, 적극적 참여에 대한 두려움이나 귀찮음 사이에서 아이들과 밀당을 하며 느슨함 또한 유지해야 한다.

느슨함은 아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숨어버리지 않고, 쉽게 시도해볼 문턱을 마련해주곤 한다. 일상 안에서 새로운 시도가 주는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유인책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언가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니라 자발적 즐거움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개인의 여백을 남겨주기도 한다.

십대를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활동가의 느슨함과 섬세함에 따라 차이가 생겨난다고 생각된다. 내가 생각하는 느슨함은 활동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고 싶고, 채우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잘 다스리며 아이들의 속도에 발을 맞추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지만 아이들을 그대로 두는 시

간 안에서 신뢰가 형성되곤 한다. 그저 아무런 이유나 대가 없이 나를 환대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시간이 아이들 일상에선 흔한 일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서 우리는 십대 개인의 속도에 발을 맞춰주기 위한 섬세함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한 친구의 속도, 성향,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존중하기 위한 언어와 태도를 갖춘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 짜여진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진행하기에 바쁘지 않고, 개별화를 통한 다양한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해야 할 것이다.

마을배움터는 사실 힘 빼는 걸 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좀 더 몰입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런 경험을 겪어주면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이런 생각들이 평소에 밥을 먹으면서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즉 느슨함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즐겁지만, 치열하게 일을 만든다.

그래서 마을배움터에서 뻔하지 않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것,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볍게' 건드릴 수 있는 것, '적당한' 온도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속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느슨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원하고 있다. 느슨하게, 천천히, 그리고 매력적으로 아이들과 과정을 만들며 어떠한 배움과 성장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실험이 필요했다.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어주어야 한다



알다시피 십대에겐 ‘틈’이 많이 없다. 한 사람 한 사람 저 마의 고유성을 지녔음에도, 원한 적 없는 보편적 시선과 압박으로 같은 삶의 길을 걷고 있다.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이다. 다른 짓을 하거나 튀는 짓을 한다면 그렇게 나에게 관심 없던 이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딴 지’를 걷다. 꼭 세상에 패배자가 될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처럼 펄쩍 뛰다.

이런 교육을 바꾸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가장 빠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 권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함을 키우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당사자에 의한 변화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평범한 아이들에게 시민에 관한 이야기, 나의 권리와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배움에 관한 이야기, 자본주의 시장에 관한 이야기,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 등을 일방적 '교육'의 방식으로 하는 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흥미가 생길만한 자신의 경험이나 이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 교과서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문화가 건 강한 것인지, 나는 어떻게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것인지 이미 배우고 있긴 한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오로지 글자로써 교과서로써 머물고 끝이 난다. 방금 읽은 내용을 곱씹어보며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 하는가. 이걸 배워 어디다 써먹지? 라는 의문만 주거나 그 의문조차 사치로 느껴지고 일단 시험을 위한 공부로 넘어가 버리기 일쑤이다. 그렇게 실천은 없고 지식만 채우는 교육, 강요와 일방적 요구가 당연한 교육, 경쟁을 배우는 교육, 서열을 나누는 교육은 '나' 자신이 당사자로서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든 무엇을 피해 보았는지, 어떤 걸 요구하고 도움받아야 하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표현할 힘을 만들지 못한다. 심지어 안다고 해도 그 생각을 정리하고 전달해볼 시간이 없다.

그래서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당연히 부여되어 있으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요구하지 못하는 **자기 권리를 책임 아닌 스스로에 의한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자신이 가진 고유성, 흥미, 욕구.. 흔히 판짓이라고 이야기하며 '공부나 해'로 통 쳐졌던 것들을 대놓고 당당히 누려볼 조건과 환경이 필요한 것이다.

한 개인으로 피어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스스로 시도해볼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작은 것이어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오로지 나의 생각과 감각에 의한 선택을 해 볼 수 있는 조건과 환경 말이다. 십대는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나에게로 당겨오는 힘을 이미 가진 존재이기에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스스로 자기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 시행착오의 경험(실패할 권리), 생각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경험(스스로 선택한 일을 해 볼 권리), 도움받는 경험(응원받고 지지받을 권리), 즐거움을 스스로 만들어 낸 경험(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 권리), 주변의 참견을 무시해보는 경험(나의 선택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권리)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조금씩 당겨올 수 있지 않을까? 십만 원 프로젝트가 그런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십대에겐 틈이 없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고유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원한 적 없는 보편적 시선과 압박에 의해

같은 삶을 살아 간다.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이다.

다시, 십대에게

자기 삶이 주도권을 되찾는 운동(실험)이 필요하다.

Story 2

십만원 프로젝트 간편하게 들춰보기

2019년 십만원 프로젝트 목적

십대와의 활동에서는 십대가 스스로 자기 멋대로 자기 시도와 실험을 해보며 자기 세계를 넓혀가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생각된다. 그 과정을 풀어가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십만원 프로젝트는 **조금 더 얼어붙은 아이들을 좀 더 흔들어보고 싶은 마음의 전략과도 같다.** 그 따뜻하고 화끈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이들에겐 자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안정감과 호기심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 1) 프로젝트를 통해 십대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실천력과 자유의지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삶의 실천력과 자유의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보려 한다.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건 중요하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혹은 '뭔가 스스로 시도하며 만들어 간다는 건 짜릿한 즐거움이구나'라는 생각은 또 다른 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나 좀 멋진데?' 하는 그런 자부심 말이다. 이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 주는 만족감이다. 이러한 과정은 '프로젝트를 한다'를 넘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의 차이와도 같다.

- 2) 십만원 프로젝트를 통해 십대 스스로 자기실천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의 역할을 찾아가고 이에 대해 아카이빙한다.

활동가는 자기 실천력이 발휘되고, 이에 대한 자기 의미를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어주어야 한다. 앞서 말한 ‘느슨하고 섬세한’ 활동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 실천가치와 실천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 3) 십만원 프로젝트가 십대에게 쉽게 자기 활동을 시도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낮은 문턱이 되며 매력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십만원 프로젝트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시간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부모님 동의가 적극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자기검열을 통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십대에게도 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낮은 문턱이 되어줄 필요가 있다.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것이 모든 아이들에게 중요하며, 누구나 그런 시간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 4)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 만족을 넘어 진정한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타인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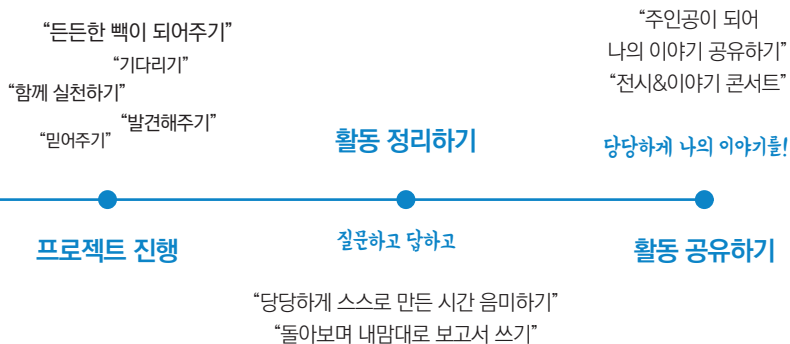
실패해볼 권리, 시도해 볼 권리, 응원받을 권리, 자신의 선택을 믿을 권리가 당연히 있지만, 이를 당당하게 누리고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아가는 십대는 박수받아 마땅하고 진정한 응원과 지지를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스스로 만든 경험이 혼자 만든 시간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하며 만들 수 있었음을 자각하고 자신의 이야기와 다짐을 공유하며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려 한다.

십만원 프로젝트 한 눈에 보기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야해!!”

11곳 학교 앞 직접 홍보, SNS 홍보, 활동가
홍보, 학교 선생님 추천, 메문자 홍보 등등





Story 3

십만원 프로젝트 자세히 담아보기

우리는 어딜 향해 걸어 가야할까?

“수능 문제를 바라보면 1분에 한 개의 문제를 풀어야 해요.
 사유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아이들뿐 아니라,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유할 시간이 없어지고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마을에서 나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성장하기 위해서
 지켜가야 할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학습하고 논의돼서 암묵적으로 지켜가야 할 것들을 논의해보면 어떨까요”

- 성북 월간동네 이야기 중에서 -

아이들뿐만 아니라 활동가도 사유할 틈이 없어지고 있음은 틀림없다. 사업과 프로그램의 본질은 어느새 흐릿해져 가고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써 남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이들에게 사유할 여백을 마련해주기 위해선 활동가부터 사유해야 함은 당연한 진리일 것이다. 같은 활동가로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 너무 크게 공감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유가 없이 아이들을 만나고 있노라면 나의 존재가 사라짐을 느끼고, 아이들도 스스로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주변도 함께 없어지는 경우를 마주하곤 한다. 아이들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놓치지 않고 가져가기 위해선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재 사유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사유라는 게 쉽지 않다. 혼자서 하기엔 더더욱 어렵다. 어떤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할지, 어떻게 사유해나가야 할지, 무엇을 학습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들이 있다. 그럴 때 함께 하는 것이 ‘동료’라고 생각한다. 서로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져주며 서로가 확장될 수 있는 좋은 존재들일 것이다.

하지만 미리미리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아이들과 첫 만남을 한창 준비해야 하는 3일 전, 우리는 어느새 ‘어떻게’ 만날 것 인가 방법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모습을 보며 ‘아차’ 싶었다.

결국, 준비하던 모든 걸 중지하고 아이들의 신청내용을 보며 그때 서야 한자리에 삼삼오오 모여 정답 없는 수다를 나눴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십만원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유하며 담아보려고 시도할 것인지, 십만원 프로젝트를 왜 하는

것인지,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 누구 하나 잘 몰랐지만, 이런 이야기와 토론 없이 아이들을 만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에 깊게 성찰하며 새벽까지 이야기가 이어졌다.

다음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을 요약해서 담았다.



2019.

8.8

김양수 : 예전에 유알아트의 김영현쌤께서 한 이야기가 생각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짓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은 살아야 한다. 요즘 십대들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당장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무언가 해볼래? 라는 제안을 해도 대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움찔달짝 못하곤 해요. 그래서 **마을배움터는 십대들이 판짓을 하고 오늘을 살 수 있게끔 방어막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행위를 마을배움터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십만원 프로젝트가 참 반가워요. 품에서 십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이곳에 많은데, 생각해보면 십대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상상하고 직접 해보았던 기억이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 무언가 해보겠다고 온 아이들에게 이 과정이 **‘나도 실패해볼 권리가 있고, 나도 시도해볼 권리가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진정 어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규민 : 나의 경험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십대들의 모습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바라볼 수 있게 해줬던 게 품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일상 속 관계와 상황을 돌아보는 과정 안에서 나를 발견했으니까. 그 발견은 나의 미래를 스스로 그려보는 힘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배움터는 아이들에게 나의 과거, 현재, 그려보게 되는 미래 모두 응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만원 프로젝트는 십만원이라는 액수를 넘어 우리는 어떤 지지와 어떤 응원과 어떤 즐거움을 전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정 :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십대에게 ‘오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과거, 그리고 내가 사는 현재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캄캄한 미래가 나를 누르고 있는데 오늘날 살라는 건 너무 폭력적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민이가 이야기한 듯이 돌아보는 시간 즉, 잠시 멈춰 생각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는 그 여백이 아이들에게겐 참 부족하잖아요.**

김준혁 : 십만원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배움터 십대 사업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해보고 싶은 것을 갖고 찾아온 십대들과 함께 배움터가 가진 지향, 만들고 싶은 과정, 주고받는 이야기 그리고 그 향기들의 시작을 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을 듯해요. **그 과정 안에서 생겨나는 고민과 섬세함이 어떻게 묻어날 수 있을지 십만원 프로젝트 설계에 집중해보면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단서들이 많지 않을까요.**

고민정 : ‘실패할 권리’ 이 키워드 하나가 머리와 마음에 남아요. ‘권리’가 주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원래 나에게 부여된 것이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당연히 누려야 하니까요. ‘실패’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의 권리 중 하나가 ‘다 칠 수 있는 권리’인데 어른들이 그 권리를 방해하듯이요. 이제 십만원 프로젝트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실패와 권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십만원 프로젝트를 재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대들의 어떤 권리를 존중해줄 것인지에 대한 지점, 알고 있지만 놓치고 언어화하지 못하고 있는 지점을 좀 더 생각해 가야 할 것 같아요. 또, 찾아줘야 하는 권리는 무엇이지? 라고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당당하게 십대에게 ‘그건 너의 권리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문성희 : 아동의 권리 이야기를 들으니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들도 청소년이 실패할 수 있게 두는 것, 지켜봐 주는 것을 잘 못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요. 좀만 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채우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아이들을 지켜 봐주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현 : 우리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되게 고맙다는 라는 느낌이 들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이야기 할래!’라고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ㅋㅋ 우리 일상이 좀 바쁘긴 하지만 이런 시간을 치열하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실패’에 대해 스스로 실패를 인정했을 때 성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실패의 기준을 스스로

잡아야 하고, 인정해야 다음의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규민 : 그 말은 실패에 대한 자기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실패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것에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자기 정리를 하는 시간을 잘 만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해석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과 마음으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같이 걸어갈 작공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김양수 : 그런데 나는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앞서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패해도 된대!라는 생각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고민정 : 성공의 반대 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은 자유를 주었을 때 **아이들은 이 자유를 잘 누릴 수 있어?** 라는 의심과 불신으로 자유를 잘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에겐 ‘의미 있는 방임’의 과정이 필요해요.**

김준혁 : 결국엔 내가 이걸 대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가 소중하다는 생각**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는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가** 중요한 지점이네요.

문성희 : 공공자금을 미성년자라고 부르는 혹은 미성숙한 존재라고 인식되는 십대에게 주는 것인데, 이번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들에게 이 십만원의 가치를 잘 드러내야 할 것 같아요.**

심한기 : 예전에 15년전 쯤 했던 ‘십만원 영화제’가 생각나. 그 당시엔 파격적이었어. 다른 영화제는 수천만 원의 상금이 열리고, 등수를 매기고.. 그 등수에 들어가려면 또 엄청난 과정이 필요했거든. 그런데 젊은 예술가들이 기존 예술계에 저항한 것이 십만원 영화제였어. 그곳에 수많은 창작자가 지원을 했어. 기존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만들었던 작품의 퀄리티보다 더 좋은 작품들이 십만원 영화제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 **저항이었지. 하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저항하라는 타이틀을 같이 말하면 안 되지. 부담스럽잖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해. 아이들을 만나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더 깊게 만들어가야 해.**

김양수 : 맞아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우리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무슨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이어가야 해요. 하지만 정말 쉽지 않죠. 하루하루 밀려오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모이고,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수다를 나누는 이유는 심샘이 이야기한 지점을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정 : 자기 색깔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실천력을 가진 아이들을 찾아내고 힘을 주는 일을 마을배움터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십만원 프로젝트는 마을배움터에서 청소년 사업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할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배움터 전체 식구들이 아이들 인원은 적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이야기가 엄청 소**

중하게 귀담아듣고,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고.. 부담스럽지는 않게.

심한기 : 그럼 다들 십만원 프로젝트 짝공으로 함께 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양수 : 품에서 이런 친구들을 키워내고 싶어서 기획단을 했었고, 저도 이때의 힘을 받아서 지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나서서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음에 감사해요. 행정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로 십만원 프로젝트에 에너지를 쓰고 싶어요.

김준혁 : 해 보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 친구들만이 가진 힘이 또 분명히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마을배움터와 만났을 때 우리와 아이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쏟은 에너지만큼 만들어지는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가 마을배움터 그리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세계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정규민 : **기다렸어요.** 이렇게 자기 실천력을 가진 십대를 만나고 싶었고,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실험하는 십대로 그리고 청년으로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점점 힘이 줄어들고 있는 십대의 힘을 어떻게 다시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른 장점을 가진 **십대들**

과 다음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낭만 공유지 사업을 담당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연결할지 같이 고민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참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요?

이상현 : 현재 십만원 프로젝트와 비슷한 청년공모사업을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 만난 청년들도 십만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십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는 프로젝트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십대는 여전히 똑같아요. **십만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십대도 당연히 이런 기회가 필요하고, 스스로 잘 만들어 갈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고 싶어요.** 십만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이지만 마을배움터에 오고 있는 십대들이 십만원 친구들을 보면서 받을 수 있는 자극도 많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 시작이 연결되어 다양한 실험의 기회로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민정 : 마을배움터 십대사업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 보고 싶은 걸 가지고 온 아이들과 **마을배움터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어떤 과정을 만들고,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를 찾아가는데 이 아이들과 시작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현재 가진 파편적 고민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물어날 수 있도록 과정을 촘촘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해답을 찾진 못 했지만 함께 아이들을 만날 동료와 서로 다른 생각,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더라면, 실패에 대한 사유, 권리에 대한 사유, 우리의 역할, 각자가 십만원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아이들과 우리가 만나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 과정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함께 일을 도모하고 살피는 과정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 내는 실천의 시작이지 않을까.

짧은 수다의 자리였지만, 이 수다를 시작으로 십만원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닌 우리 각자의 서사와 연결된 저마다의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

“자극적” 모집홍보 정말 좋은걸까?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야 했다.’



학교 교사를 만나기 위해 종종 중고등학교를 방문하곤 한다. 벽에 빼곡하게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포스터가 잔뜩 붙어있다. 점심시간, 하교 시간에도 마켓(?)을 한다며 동아리별로 쉼 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일 년 내내 이미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졌고, 하교 후에는 학원으로든 충분히 짝 차 있다. 그러한 아이들의 일상 안에서 마을배움터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은 또 하나의 모집 홍보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 컸다.

홍보물은 최대한 B급으로 만들어보고자 했다. 머니건을 들고 돈을 뿌리는 사람과 ‘10만원을 너의 손에!’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걸기도 했고, 흡사 나이트클럽 전단지 같은 느낌을 내려고 했다. 여기서 다가 아니다. 한여름에 탈을 쓰고 2주간 하교 시간에 학교 앞을 서성이며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다.

효과는 생각보다 컸다. 학원 홍보인 줄 알고 피하기만 하는 아이들이 직접 와서 말을 걸고, 사진을 찍고 질문을 먼저 하기도 했다. 홍보를 끝내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으며 잠시 쉬고 있노라면 바로 문의 전화와 카톡이 쏟아지기도 했다.



자극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있어야 할까?

십만원 프로젝트 홍보물을 만들며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 마을배움터 안에서는 ‘흑우 사건’이라고 부른다. 십만원 프로젝트 홍보 당시 마을배움터도 입주를 하였고, 아이들이 마을배움터에 놀러 오라는 홍보물도 함께 만들었다.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이어 한다는 생각에 어떤 자극을 주어야 하는지, 어떻게 관심을 끌 것인지에 깊은 사유의 과정을 놓치면서 ‘흑우 사건’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만든 홍보물이 바로 이것이다.



결국 자극경쟁에 동참하여 ‘흑우’(호구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은어)를 컨셉으로 마을배움터 초대장을 만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엔 ‘아이들의 관심을 끈다’는 생각만 있었다. 마을배움터

페이스북 페이지로 온 메시지 하나에 ‘아차’하는 마음이 들었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며 사건을 마무리되었다.

입니다.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은 단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바로 흑우라는 단어인데요.

우선 마을배움터가 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유행어를 사용하여 공감얻자는 취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행어나 속어를 사용하더라도 유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흑우’는 ‘호구’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는 비하하고 폄하하는 의미가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대체로 유행어와 속어는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가 많아서 사용하시는데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다수의 사람들 특히 이 말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는 청소년이 보기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용어를 선택할 때 많이 고민하셨을거라 생각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민해보시고 표현을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수고하세요~

십만원 프로젝트 홍보물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 못하다. 아이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자극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받고 있다. 십만원 프로젝트의 ‘십만원’은 오로지 돈으로 아이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님에도, 홍보물에는 머니 건을 쓰고 있는 사람과 ‘십만원을 너의 손에’라는 자극적 이야기를 내걸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아이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맞으나 이러한 접근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다.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것 안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 하루 24시간 중에 깨어있는 시간 속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놓은 ‘콘

텐츠'에 노출되며 살아간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 중 공백이 있노라 하면 습관적으로 콘텐츠로 공백을 채우는 경향이 있다. 콘텐츠 제작자는 단순히 '자기 이익'을 위해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더 많은 관심과 그 관심을 통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 자신이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기에 다소 비겁한 방법을 쓰기도 한다. 어느 때 보다 자극적으로 변해버리기도 한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자극경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신을 봐달라고, 알아달라고, 부러워해 달라고 포장되어 이야기하는 개인 SNS, 1인 방송,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수많은 광고와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등.. 그렇게 일상으로 들어온 수많은 콘텐츠를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를 쥐고 흔들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 큰 자극을 얻기 위해서 혹은 더 큰 소비를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이들에게 직접 이유를 들어보자면 '그냥'이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그냥' 보게 된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틈만 나면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유가 아마도 '무언가 결과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닐까? 누군가의 먹방, 누군가의 일상, 누군가의 요상한 짓 등등.. 모두 다 아이들에게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쓰지 않아도 되기에 틈틈이 일상에서 공백이 생길 때마다 주는 휴식이나 안식처이지 않을까. 잠깐씩 언제든 꺼내어 쓸 수 있는 그런 휴식인 셈이다.

모집홍보물을 만들고, '흑우 사건'을 겪고 어떤 홍보를 해야 한다는 답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똑같은 자극을 또다시 재현하는 일은 멈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아이들이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고 끌려 있는지 그 경향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자극, 필요로 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똑같은 자극을 이용한 자극 경쟁에 동참하지 않고, 필요한 자극을 제자리에서 꾸준히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홍보물은 그저 친절한 안내서, 따뜻하고 재밌는 초대장일 뿐일 테니까.

“새로운 걸 하고는 싶긴 한데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해 보고 싶은 게 너무 사소한 것이라 괜찮을까요?”

“10만원을 진짜 주나요?
뭘 믿고 줘요?”

신청서에 담긴 아이들의 모습

아래에 아이들이 신청한 내용을 추려서 첨부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아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관심사, 십만원 프로젝트와 같이 응원받고 지원받으며 공부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상상이 되지 않는 스스로 만드는 활동과 배움

모집 기간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십대들이 배움에 대한 상상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음을 느꼈다. 카톡 익명으로 문의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고, 그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질문이 대다수였다.

“새로운 걸 하고는 싶긴 한데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해 보고 싶은 게 너무 사소한 것이라 괜찮을까요?”

“10만원을 진짜 주나요? 뭘 믿고 줘요?”

특히 강북구 지역 청소년에게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다. 스스로 배움을 만들고, 스스로 활동을 만들 수 있다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듯하다.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익숙하게 받아온 1시간 ~ 2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이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정해진 시간 안에 무언가 이루어지는 진행 방식에 익숙하기도 하다.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 있는 것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배움 활동의 경험이 부족한 것이다. 모집 기간과 신청 기간에 받은 카톡 문의나 신청현황을 보았을 때 강북구 지역의 십대가 유난히 배움에 대한 상상이 어려운 듯했다. 정확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지역별로 다양한 배움

의 기회의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상 강북구만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십대에게 배움에 대한 상상은 교과서와 문제집을 통한 공부 이상을 넘어가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다. 학교, 학원, 여가, 방과 후 프로그램 등으로 규격화 되고 있는 배움 과정들을 시간이 나 장소 등에 제한되지 않고,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배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마련해야 할 듯하다.

십대와 돈

십만원 프로젝트가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건 사실이나 정말 많은 아이가 ‘10만원’에 꽂힌 경우가 많았다. 신청한 아이 중에 돈을 갚기 위해서 혹은 아이 폰 수리, 농구화 사기 등을 위해 신청한 아이들도 있다.

‘청소년 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연관검색어에 ‘청소년 돈 버는 법’, ‘청소년 돈벌이’, ‘청소년 돈 빌리는 곳’, ‘청소년 돈 불리는 법’, ‘청소년 돈 빌려 드립니다’. ‘청소년 돈 범죄’가 줄줄이 연결되어 검색창에 뜬다. 아이들에게 돈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청소년에게 돈이 중요하다고 존중해주지 않는 듯하다.

당연히 돈이 무엇인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선과 지식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돈의 본질과 돈의 작동원리, 돈에 지배받는 삶이 아닌 돈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경험할 기회가 너무 적다.

돈을 위해서라면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들을 꾸짖을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렵고, 돈이 없으면 주변의 시선이 힘들고, 돈

이 없으면 다양한 교육을 받기 어렵고, 돈이 없으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 같고, 사회적 관계를 맺기 전 경제적 관계부터 맺어진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데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움을 거리는 고3

새롭게 보인 것은 15세부터 신청모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세는 단 한 팀도 신청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고3’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19세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19세 아이들의 신청내용의 일부를 다시 살펴보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같이 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요.”

“어른이 되면 하려고 했는데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요”

“고3이기 때문에 집에서 뭘 해도 눈치가 보이는데

자유롭게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고3은 십대 시기 중 외부적 억압뿐만 아니라 자발적 억압까지 포함해서 가장 큰 억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고3의 신청이 가장 많았다는 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고3이 된 순간 취업이나 진학.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선택한 것에 대해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꾸지람을 받거나 관심 밖의 존재가 되어버린

다. 신청서 내용처럼 같이 ‘할 사람이 없고’,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학교에서만 아니라 친구, 부모, 학교 교사 등 자신의 일상에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취업과 진학 이외의 일상을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십대에게 넘쳐나고 있는 다양한 교육들이 고3은 무조건 제외가 되어 버린 건 오랜 일이다. 마을 교육, 혁신 교육이라며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고3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고3에게도 일상적 경험과 응원 등 오로지 생존만을 위한 교육을 넘어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해주며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듯하다.

전체 신청자 내용



이름	추*원
기본정보	18살, 여
신청경로	페이스북

신청 계기

뱃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자

프로젝트 소개

소방대원 처우개선을 주제로 뱃지를 만들어 판매하고자 합니다. 판매한 금액 전체는 소방대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부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동기

광고홍보학과에 가고 싶고, 어떠한 물품을 직접 제작, 홍보, 판매까지 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소방대원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꿈과 좋은 일을 결합해서 동시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윤*영
기본정보	19살, 여
신청경로	전단지

신청 계기

일 벌이는 걸 좋아해서

프로젝트 소개

캔들 만들기, 미술작품 길거리 전시회, 댄스워크숍, 악몽을 꾸지 않게 한다는 드림캐쳐만들기, 나를 소개하는 글이나 그림 그려서 알리기, 등산&산책로 걷기, 댄스팀 모집해서 쇼케이스 열기 등

프로젝트 동기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같이 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못 해본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낸 생각들로 프로젝트를 연다는 게 너무 부듯할 것 같고 학교 활동뿐만 아닌 외부활동도 많이 해보고 싶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어요.

이름	김*정의 4명
기본정보	19살, 여, 5명
신청경로	문자

신청 계기

레진공예가 해보고 싶었지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못하고 포기하려던 걸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레진공예는 레진으로 원하는액세서리나 장식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동기

학생인 저희가 사기에는 부담 돼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하자 했는데 이번이 기회라 생각됩니다. 프로젝트 이후엔 저희가 만든 작품들을 보면서 고3을 이용하여 10대의 마지막에 큰 추억으로 남기고 새로운 것을 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손*희 외 3명
기본정보	19살, 여, 4명
신청경로	친구소개

신청 계기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돈이 가장 걱정되는데 돈도 주고 마침 방학이라 아무 계획 없이 지루하게 보내기보다 뭐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프로젝트 소개

각자 하고 싶은 모형(비행기를 좋아한다면 비행기, 로봇을 좋아한다면 로봇)을 선택해 프라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프로젝트 동기

원가를 해보고 싶어도 고3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뭘 해도 눈치가 보여요.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해보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이름	김*비
기본정보	17살, 여
신청경로	문자

신청 계기

전단지가 맘에 들었고 탄짚하기 좋아 하는 나에게 맞춤형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프로젝트 소개

학원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등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나 특정 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크로키 하거나 스케치하기.

프로젝트 동기

학원, 학교 가는 길엔 단어 외우거나 핸드폰 하는 등 주변을 잘 보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일찍 출발해서 여유를 갖고 주변 거리나 풍경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소소한 행복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고 싶다.

이름	윤*혁 외 2명
기본정보	17살, 남, 3명
신청경로	페이스북

신청 계기

저희가 돈이 많이 필요해요. 성우에 관심 많은 친구,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또 공부는 잘하기 싫어서 이것저것 건드려보는 친구, 별다른 취미를 가져본 적은 친구들입니다. 성적 안 나오는 모범생으로써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구체적으로는 더빙이 해보고 싶습니다. 녹음실을 빌려 영상편집, 영상더빙 등을 남들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낮아도 저희 손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어릴 때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서 자연스레 인터넷 속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익숙해졌는데, 이러한 경험이 절 인터넷 방송으로 이끈 듯합니다.

프로젝트 동기

이것저것 특별한 것은 다 해보며 진로를 찾고 싶어합니다. 돈도 없고 해본 것도 없기에 기회를 빌려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이름	마*준
기본정보	17살, 남
신청경로	전단지

신청 계기

10만원으로 내가 방학에 계획했던 것들을 해보려고요

프로젝트 소개

제 꿈이 패션디자이너인데 한번 부자재 시장에 가서 원단들을 보고 만져보고 옷을 만들 때 무엇이 들어가는지 구경해보고 마음에 드는 원단을 사서 집에 재봉틀이 있는데 엄마한테 재봉틀 사용법을 배워서 직접 제가 고른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동기

이 프로젝트로 제가 해보고 싶었지만, 괜히 원단들을 잘못 사왔다가 **엄마한테 혼나거나 돈 버릴까 봐** 무서웠던 것들을 과감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이*진
기본정보	19살, 여
신청경로	페이스북

신청 계기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는 취업을 앞둔 3학년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쪽을 평소 **동네**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었는데 제가 자신 있는 일과 결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저는 평소에 과제나 공모전 등을 하기 위해 동네에 있는 카페에 자주 갑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카페들이 많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웹 개발을 이용하여 우리 동네에 생기는 카페거리를 소개하는 웹 사이트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카페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먹어보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동기

방과 후 때문에 늦게 끝나는 학교와 수많은 과제를 하느라 정말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직접 카페를 인터뷰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점이 기대됩니다!

이름	강*빈 외 1명
기본정보	16살, 여, 2명
신청경로	친구소개

신청 계기

친구들끼리만 있을 때 뭘 해보려고 해도 **한정된 분위기**인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곳에서 해보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걸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친구와 설명을 듣자마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젝트 소개

친구와 직접 옷을 디자인해보고 제작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옷을 갖고려고 해요. 도안을 직접 만들고 만든 도안대로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일반 티셔츠가 아니라 오래 입을 수 있는 유행 타는 옷을 만들어 보고싶어요.

프로젝트 동기

제 현재 꿈이 패션디자이너이기 때문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저희가 옷을 어떻게 제작하고, 디자인하면 좋을지에 대해 더 알고, 옷에 특징과 면의 종류 성질도 알아봄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디자이너를 하기 위해 진지하게 옷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름	김*우
기본정보	16살, 여
신청경로	문자

신청 계기

전부터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마을배움터 선생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더 제대로 좋은 이야기를 담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자면 **10만원 보다는 최대한 도움 주신다는 문장에 더 눈이 뜨였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자해를 했던 혹은 하고있는 청소년과 어른들의 경험담을 모아서 책으로 엮고 싶어요. 에세이의 형태로 제 경험담과 인터뷰 내용을 교차하는 식이 될 것 같아요. 독립출판도 고려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동기

청소년 자해 문제에는 너무 편견이 가득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런 편견 어린 시선들이 자해 청소년을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활동으로 그 **편견을 조금이라도 견어낼 수 있다면 좋겠어요.** 또 자해를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꼭꼭 눌러두고 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로받을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이름	김*희
기본정보	19살, 여
신청경로	문자

신청 계기

요즘 길고양이들을 챙겨주고 있는데 용돈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요즘 학대에 관련된 이야기도 너무 많이 나와서 길고양이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길고양이들에게 하루라도 더 맛있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길고양이들이 굶지 않고 하루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길고양이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고냥하자'라는 유튜브를 통해 길고양이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많은 사람이 길고양이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동기

많은 사람에게 **생명은 소중하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더 나아가 길고양이들도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름	조*아 외 1명
기본정보	18살, 여, 2명
신청경로	문자

신청 계기

저희는 학생 신분이라 경제적 여유가 없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가 해보려는 것을 지원을 받으면서 해보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2학년 한 학기를 끝내며 자신을 위한 3코스의 요리를 구상하고 만들어서 먹어보며 다음 학기를 위해 준비하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동기

학교나 학원에서는 **정해져 있는 조리**를 해야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직접 조리를 하며 맛의 조화를** 생각하며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전공을 더욱 특화시킬 수 있어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름	신*주 외 2명
기본정보	16살, 여, 3명
신청경로	페이스북

신청 계기

상봉중학교에서 과연 아이디어뱅크라 말할 수 있는 저희 셋에게 가장 어울리는 프로젝트라 생각되어 바로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탄질을 위한 10만원을 지원받고 **우리가 평소애 하고 싶었던 것들을 위해 쓰다면**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가장 맛있는 버블티 품평회 / 동대문 부자재 시장 가서 악세서리 만들고 블로그마켓 운영해보기 / 1일 패키지 여행 가서 유튜브 채널 만들어보기 /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는 공식 깨보기 (같은 색조 화장품 찾아보기) / 단짠단짠을 이을 먹 공식 찾아보기 등

프로젝트 동기

많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학생이 할 수 있는 데에는 경제적인 한계가 있어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큰 야망을 꿈꾸는 저희가 위 프로젝트를 해 보게 된다면 **탄질처럼 보이지만 어떤 것보다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름	박*엘
기본정보	19살, 남
신청경로	전단지

신청 계기

10만원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곳에 써보고 싶어서

프로젝트 소개

10만원으로 농구화를 사려고 한다.

프로젝트 동기

그 이유는 농구 특성상 신발의 접지가 중요하고 쓰다 보면 농구화는 빨리 해지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해줘야 되지만 그만큼의 돈이 없어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름	김*석
기본정보	18살, 남
신청경로	전단지

신청 계기

돈

프로젝트 소개

저는 물구나무를 잘하는 척하다가 넘
어지는 걸 해 보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동기

10만원을 받아서 제 취미인 **방송**을
캠을 켜면서 해보고 싶습니다.

이름	김*영
기본정보	19살, 여
신청경로	전단지

신청 계기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겨서

프로젝트 소개

걸그룹이 입는 의상들은 사지 않고 디
자이너가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
다. 하지만 너무 이쁜 옷을 발견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보고 싶습니
다.

프로젝트 동기

이번 기회에 **해 보지 못한 것을 해 보**
고 '의상 리폼' 하는 것도 배워보고 싶
습니다

이름	17
기본정보	18살, 남
신청경로	전단지

신청 계기

자퇴 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에 맞는 지원이 없었다. 페이스북에서 이런 게 나와서 몇 가지 질문 후 신청했다. 한 가지라도 해결하자는 마음

프로젝트 소개

1박 2일이든 당일치기든 여행을 가고 싶다. 1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으로 내가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이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

프로젝트 동기

내가 **어디든 혼자 어딜 가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돈을 벌어난 적도 없다**. 10대가 지나가기 전에 많은 것을 해결하고 싶다. 프로젝트 이후엔 내 추후 꿈에 필요한 영감들을 얻고 싶다. 아니면 기분전환이라도 괜찮다. 얻는 것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사실 경험이 곧 얻는 것이라 100% 이득을 볼 것 같다.)

자퇴생은 무조건 놀 것이라는 편견을 부수고 싶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됐든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름	18
기본정보	18살, 남
신청경로	페이스북

신청 계기

파충류용 비바리움을 만들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식물과 생물이 공존하는 공간인 **비바리움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인조 비바만 만들었는데 이 기회에 진짜 비바리움을 만들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동기

지금까지는 금전적인 이유로 인조 비바만 만들었는데 이 기회에 진짜 비바리움을 만들고 싶습니다. 비바리움을 만들어 생물과 식물이 공존하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난생처음 만드는 진짜 비바라 식물도 찾아보고 폭포를 만들 여과기도 보고 있어요. **희귀반려동물 시장을 더 알리는 힘을 쓰고 싶은 고등학생입니다!**

이름	19
기본정보	18살, 남
신청경로	페이스북

신청 계기

돈이 좋아서

프로젝트 소개

돈 재밌고 알뜰하게 쓰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동기

내가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써보지 못하고 망설였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돈 좀 써보고 싶다~~돈 쓰고 싶다!

이름	20
기본정보	17살, 남, 3명
신청경로	페이스북

신청 계기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초기자금이 없음

프로젝트 소개

우리만의 옷을 디자인해서 한번 팔아 보고 싶다.

프로젝트 동기

어린 나이에 사업하는 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당당히 따지고 싶고 프로젝트 이후엔 큰 사업체를 얻고 싶다.강 해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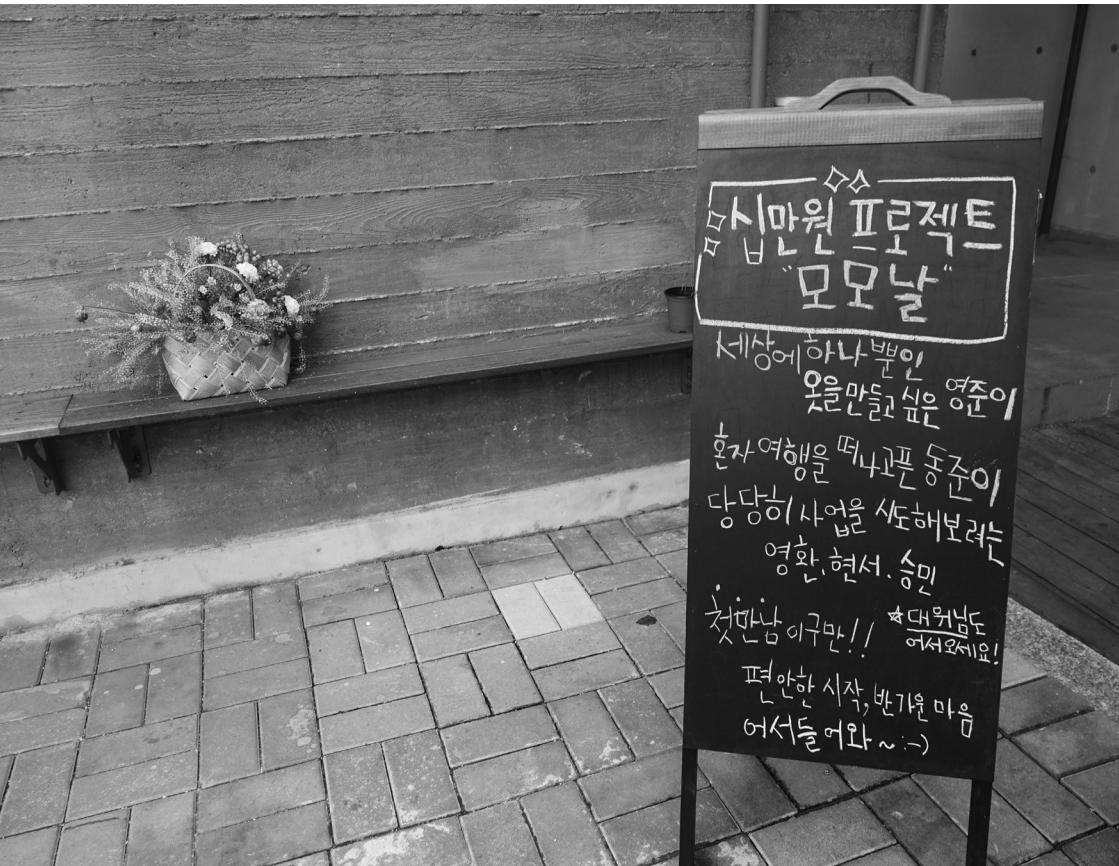


오리엔테이션이 아닌
소중한 '만남'이 되길



환대. 그 사람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첫 만남에 대한 기대가 컸다. 준비를 시작하며 진행 방식이 아닌 어떤 태도로 아이들을 맞이할 것인가를 이야기해보고자 했다. 우리가 가진 첫 만남의 핵심은 결국 '환대'였다. 어색하고 낯선 공간이니까 배려하는 태도로써의 환대를 넘어 손님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것, 손님이 주인으로서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돕는 것을 생각했다.



처음 오는 아이들이 자기 자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곳의 문화를 말이 아닌 감각으
 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숨겨져 있던 예쁜 천을 꺼내고, 배움
 터 공간을 활용하여 이야기가 있는 전시회를 준비하고, 전화인터뷰 당시 느껴
 졌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느낌을 적은 가랜드를 만들었다.

김지우 / 어두움 사이의, 밝은 빛을 발견해 내는 사람

김승비 / 일상의 풍경을 행복하게 그려 내는 사람

김야베스, 강예빈 / 패션을 통해 자기를 발견해 내고 싶은 사람

윤수혁, 박창민, 김태성 /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

신우주, 김서운, 정다은 / 쓸모없음의 실험으로 쓸모 있음을 만들어 내려는 사람

김진희 /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행복함을 아는 사람

고은세 / 요리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

조현아, 이예림 / 요리의 과정을 창조해내는 반짝반짝한 사람

김윤정, 손영희, 이예진, 정승연, 김지은 / 새로운 것의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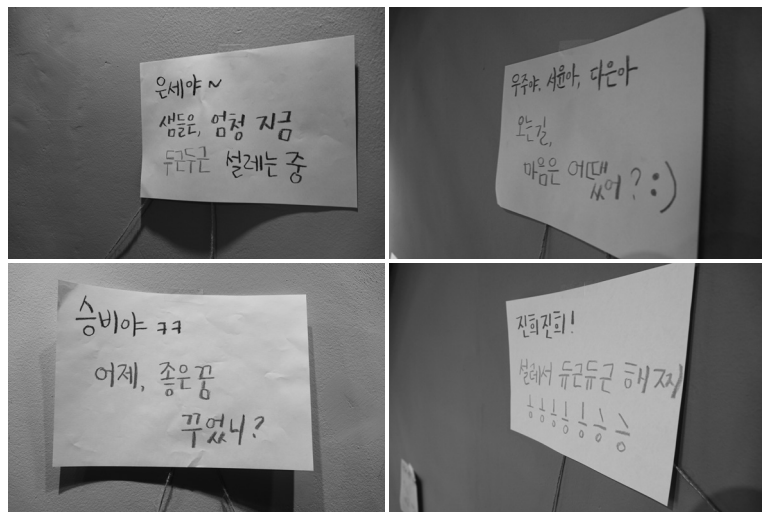
마영준 / 꿈을 위해 한발 한발 내딛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사람

이유진 / 내가 살고있는 동네를 소중하게 담아내려는 사람



조금은 느슨하게..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오는 순서대로 천천히 차 한 잔을 하고 인사를 나눴다. 서로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긴장과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해 이런 저런 말을 건네기도 했다.

삼삼오오 아이들이 모여지는 대로 우리들은 큐레이터가 되어 준비한 ‘십만원 전시장’으로 안내했다. 곳곳에 쓰여져 있는 자기 이름을 보며 미소 짓고, 마을배움터 선생님들의 생에 가장 짜릿했던 순간의 이야기가 담긴 전시물을 관람하고, 배움터에 활동하고 있는 셰프학교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다.



차 한 잔을 하며, 전시회를 보며, 배움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래 친구를 보며 긴장감은 설레임으로 조금씩 바뀌었음을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의 표정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환대라는 건 ‘아 이곳에 내 자리가 있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나를 받아들여

주겠구나’를 느낄 수 있는 안정감. 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환대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환대가 아닐까.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박수 받아 마땅해.

전시회를 둘러보고 모였을 땐, 처음 본 사이였음에도 벌써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상태로 본격적인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전시 보고 나니 어때?”

“제 이름이 여기저기 적혀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상하던 오리엔테이션이 아닌가 봐요.

이런 자리인 줄 생각도 못했어요!”

왜 깜짝 놀라고, 왜 상상하지 못한 일 인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환대가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에서 반겨지는 환대가 익숙해서이진 않을까. 무언가를 이뤘거나,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했을 때만 주어지던 달콤함이 익숙한 건 아닐까. 청소년의 일상이 그렇다. 누군가 정해놓은 ‘잘함’의 기준에 맞춰 줄을 세우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삶의 전체가 실패한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분명하게 전하고 싶어 짧게 피피티를 띄웠다. 왜 이런 환대를 받아 마땅한지, 왜 이곳에 있는 너희들이 멋진지, 왜 반가운지 이야기를 전했다. 그 누구도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걸, 존중받아 마땅하는 걸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다. 십만원 프로젝트는 누군가 정해놓은 ‘잘함’을 넘어

내가 만든 선택으로 ‘시도’와 ‘실패’를 맘껏 해 보고자 이곳에 온 사람이라면 박수받아 마땅하니까.

서로에게 ‘잘’ 보이는 건 중요해지지 않았고, 실패하고 시도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다. 각자 준비해온 프로젝트 소개를 자신의 속도와 자신의 방식으로 당당하고 정성스럽게 이야기했고, 모두가 정성스럽게 들었다.


배움터 활동가들도 각자의 십대 시절 무언가를 실험하고 시도하며 스스로 성장함을 느껴왔고, 그 시도들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 또한 알기에 한 친구 한 친구의 이야기들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시도하고 실패할 권리(證)

자신의 삶과 일상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가는
귀한 존재로서....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시도하고 실패할 권리를 응원하고 증명하는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8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드림



시도하고 실패할 그 당연한 권리를 아이들에게 마련해주고 싶어 십만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성공해야만 한다면 아이들을 움짱달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잣대 속에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 스스로 만든 기회 안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마다의 색깔을 깊게 존중하며 곁에서 응원해주는게 아닐까. 그 응원을 통해 스스로의 시도와 실패,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행사 그 이상의 마음과 눈빛을 주고 받기

환대해주고, 맞이하고, 응원하는 것이 누군가는 기본적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해진 자리를 아이들에게 마련해주는 것이 아닌 아이들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환대는 활동가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의 태도를 들여다보고 일상에서 실천으로써 담겨야 줄 수 있는 마음이란 생각이다.

말은 쉬워도 사업을 진행하며 기본적 태도를 놓치는 실수는 만연하다. 활동가의 일상에서 그리고 조직문화 안에서 계속해서 곱씹고 돌아보며 자연스러운 세포들의 움직임이 되어갈 때 사업의 멋진 기획을 넘어 마음의 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10만원보다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좋았고 서로 공감해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힐링 된 것 같네요.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선생님들 진짜 감사드려요.”

- 김승비 -

“제가 10만원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카톡을 보고
또 만날 날짜가 잡혔을 때부터 엄청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 기대보다 더 좋아서 감동했어요.
쌤들도 너무 좋으시고 배움터 공간도 좋고!!
이런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우주 -

“제가 해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가치롭게
생각해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 고마운
시간이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10만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싶어요.”

- 김진희 -

처음부터 전시회를 상상하고, 한 명 한 명 이름이 담긴 환대를 상상하고, 당당히 실패할 권리 증서가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이 쓴 신청서를 보며 가슴이 설레었고, 행사를 잘 진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아이들을 만나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다 보니 떠오르는 생각들이었다. 그러한 태도를 다시 곱씹을 때 첫 만남은 행사 그 이상의 마음과 눈빛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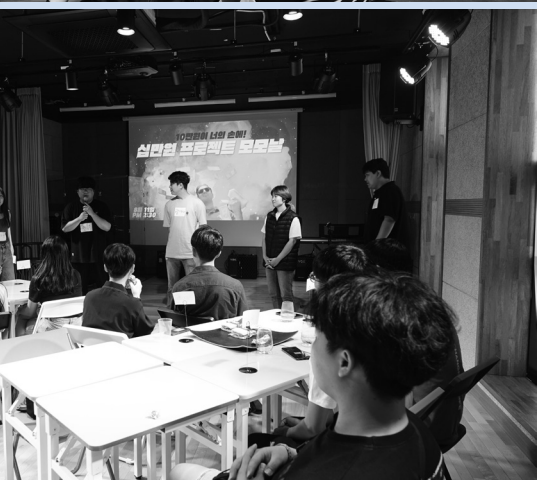
아이들뿐만 아니라 활동가들도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실패’와 ‘시도’해볼 권리를 질문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응원과 진정한 실패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해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영혼 없는 응원, 영혼 없는 인사말, 영혼 없는 실패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다. 진정한 환대를 시작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당당히 되찾아 가보기로 했다.



심민원을 내맘대로 썼습니다



Story 3 심민원 프로젝트 자세히 알아보기



자기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경험.
그 경험이 배움이 되는 과정을 만들어 가보고 싶었다.

다양한 선택지를 시도해 볼 권리를.
시도 안에서 성공도 실패도, 포기도 해 볼 수 있는 권리를.

아이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작 꿈 들 의 이 야 기

“12팀. 총 22명. 그리고 여섯”



12팀, 22명

십만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친구들이다. 22명의 친구들의 짝꿍으로 마을 배움터 전체 직원 4명과 청년활동가 2명이 함께 해 총 6명이 두 세팀씩 짝꿍의 역할을 했다. 6명 모두 십대를 만나는데 있어 엄청난 베테랑은 아무도 없었다. 정말 작은 것 하나 하나가 고민이었고, 질문하나 던지는데 있어서도 고민이 앞섰다. 하지만 아이들처럼 우리들도 고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도하고 실험하며 실패해볼 수 밖에 없었다.

22명이라는 적은 숫자임에도 6명이 함께 한 이유는 그저 응원하고 지지하기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스스로 해볼 수 있게 자꾸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곁에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진정어린 응원을 주는 것,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경험을 제안해주는 것, 가끔은 따끔한 충고를 건네기도 하는 것, 답답함을 참고 기다려주는 것... 참 다양하다. 어떤 역할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22명의 아이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 다름을 최대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 짝꿍이고, 같이 걸어가는 좋은 친구이자 어른이 필요하기에 6명의 활동가가 함께 한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모날(첫만남)에 얻었던 동력이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아이들의 일상은 녹록치 않았기 때문이다. 시험 기간, 여름휴가, 학원, 학교과제, 학원숙제, 입시준비, 물리적 거리가 먼 경우 등등... 다양한 상황들로 연락을 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연락이 잘 되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에도 고민이 있었다. 이 친구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함을 겪는 짝꿍도 있었고, 십대 친구가 너무 예뻐서 마냥 칭찬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잘 조절되지 않는 짝꿍도 있었고, 이 친구의 프로젝트가 사회와 세상의 문제를 연결한 거창한 프로젝트가 되길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종 선발팀〉

구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1	강아지 간식	자신이 좋아하는 베이킹으로 강아지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간식 실험
2	길거리에서 그림 한 장	입시미술로 인해 자신이 진짜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지 못해 등하교길에 틈을 내어 그리고 싶은 일상 그려보기
3	도라에몽 옷장	단짝 친구와 세상에 하나뿐인 옷 만들기
4	길고양이 행복 프로젝트	길고양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엽서만들기, 영상만들기, 밥챙겨주기 프로젝트
5	UNTIL RISE	악세서리 상점 사장님을 꿈꾸는 단짝 3인방이 블로그 마켓 열어보기
6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	청소년 자해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책 만들기
7	우리만의,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추억 만들기	19살 5명의 단짝 친구들의 추억 만들기를 위한 레진공예품 만들기
8	자유로운 개인방송	3명의 각자 재능을 살린 영상과 음악 만들기
9	마중길	자신이 가진 프로그래밍 재능을 활용하여 동네 카페 골목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만들어보기
10	3.M.E	세상에 하나뿐인 3코스 요리 만들어보기
11	떠디든 가네	나홀로 여행을 기획하고 떠나보기
12	영준이의 디자이너 되어보기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세상에 하나 뿐인 나만의 옷 만들어보기

우리는 다시 십만원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자꾸만 아이들의 속도를 앞질러 뛰어가고 싶은 마음을 붙잡곤 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짝꿍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과정을 풀어나갔다. 십대친구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고 그 공부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남겨놓는다거나, 함께 교환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거나, 하루에도 수 십통씩 전화를 해본다거나, 추천해줄 책과 자료를 조사한다거나 등등..

결국 짝꿍들은 아이들과 속도를 맞추는 것, 같이 공부하는 것, 십대 스스로 만들어갈 주도권의 경계를 지켜주는 것, 스스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장점과 merit를 발견해주는 것, 좋은 경험의 장이 있을 때 용기를 주어 참여해보고 사람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마음 편히 도움받을 수 있는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것, 그럼에도 무조건적인 응원을 남발하지 않는 것.. 우리들의 역할이 그러했다.

그래서 짝꿍들의 이야기를 신었다. 22명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진 않으려고 한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담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었지만, 22명 중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불편한 친구도 있고, 아이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보다 그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어떤 고민과 어떤 시도를 했었는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었다.

문성희

모든 것이 삶의 한 과정임을...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버겁다. 사춘기 시절, 부모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 할 시기에 아이들이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친구들과 경쟁하기 바쁘다.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로 줄을 세우고 1등이 아닌 아이들을 패배자로 만든다. 공부가 다가 아닌 세상에, 아이들은 공부밖에는 시도해 볼 선택지가 없다.

자기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경험. 그 경험이 배움이 되는 과정을 만들어 가보고 싶었다. 다양한 선택지를 시도 해 볼 권리를. 시도 안에서 성공도 실패도, 포기도 해 볼 수 있는 권리를. 아이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짜꿍 -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

아이들에게 주어진 십만원. 생각해 보면 그리 큰돈은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아이들이 십만원 프로젝트에 신청했다. 누구하나 같은 주제가 없다. 개개인이 모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신청했다. 돈의 액수의 유무를 떠나, 아이들에게는 시도 해 볼 수 있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다.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누군가 응원(지원)해 주는구나’ 하는 안전함. 그 안전함을 상징하는 징표가 아이들에게 십만원 프로젝트이지 않았을까?

[짜꿍] : 서로에게 비밀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이. 오랜만에 만나도 허허실실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이.

‘멘토’라는 거대한 단어를 버리고, 짝꿍이란 단어를 선택한 이유다. 무언가를 가르치려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혹은 거대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조연자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이길 바라며 십만원프로젝트에 함께 하는 아이들과 한명한명 짝꿍을 맺었다.

(어떻게?) 함께 걸음.

‘함께 걷는다’ 말은 쉽지만, 그리 쉽게만 느껴지지는 않는 과정이었다. 자꾸만 먼저 살아왔던 삶이 아이들 이야기를 앞서 걸었다. 아이들의 과정에 의미를 붙여넣었고, 의미 있는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의 속도를 생각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지,
아이들은 거기까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어쩌면, 나는 나의 기준의 길로 아이들을 걸어가게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 나란히 걷기를 시작했다. 무엇을 원하는지 들었고, 질문했다. 그 질문의 과정에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 아이의 깊은 고민 또한 들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쑥 불쑥 또 다시 나도 모르게 앞서 걸으려 하는 나를 나는 바라봐야 했고, 또 다시 나의 속도를 조절하기를 반복 했던 것 같다.

포기,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배움

함께 프로젝트를 하겠다던 아이들이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어 싸우게 되었다.

〈‘프로젝트 어떡하지?’〉

아이들이 싸웠다는 소식에 처음 들었던 마음이다. 그리고 두 아이와 각각 통화를 시도 했다. 서로에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냥 둘이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만나서 이야기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이야기 하고 싶기도 했다. 그런데 그게 맞는가? 싶은 의문이 들었다. 둘의 문제에 짝꿍이랍시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게 맞는 건가? 중간에 중재한다고 이 일이 해결 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완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가? 다양한 고민이 들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제시하기보다 질문하기로 했다. 왜 그랬는지? 마음은 어떤지? 무엇이 최선이라 생각하는지? 그런 지난한 과정 끝에 아이들은 ‘그만 하겠다’고 서로가 판단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했다. 더불어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나의 어린 시절에도, 한참 커버린 지금의 나도, 크고 작은 문제로 상대방과 싸우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의 나 또한 그 과정에서 항상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애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 내는게 아니었기에,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삶의 과정에서 당면한 내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잘 해결 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중요한 십만원 프로젝트 과정의 하나이지 않을까? 아이들은 실패 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어떤 배움을 가져가야 할까?

감동은 별게 아닌 것.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한 십대도 있었다.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경험이 없었다고도 했다. 그래서 혼자의 여행을 꿈꾸며 십만원 프로젝트에 도전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보니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니 거대한 의미가 담겨야 할 것 같기도 했다고 한다.

“프로젝트를 바꿔도 돼요?”

“음.. 이유를 알 수 있을까?”

“번뜩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프로젝트이름이 십만원으로만 짓 하기잖아요. 진짜 할 수 있는 만 짓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밖 청소년) 판짓을 너무 안 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약하게는 뭐 한강에서 노을보기부터 평일에 혼자 바다 보러가기까지요. 여행이란게 쉽지가 않아서 여행으로 단정 지어버리면 기타 활동 같은걸 너무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하는 여행은 뭐야? ㅎ
나는 그 지점부터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깊이 생각할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것 같아요.
여행이란게 근데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전 판 짓이라
고 표현한 거죠”

“여행이라는 이름에 계속 갇힌다면..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아.
깊은 의미를 담는게 싫어서? 또는 어려워서?
여행보다는 판 짓을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
샘 생각은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그 생각 안에 나온 판 짓이
너의 삶에서 작은 점들을 찍어 갈 수 있다면.
그 과정 모두 응원해 :)”

“감동..”
별게 다 감동인 아이이다. 이 아이는 프로젝트 주제를 바꾼
다 했을 때 선뜻 괜찮다 이야기 했던게 크게 가닿은 모양이었

다. 결과보고서에도 그 이야기를 함께 넣었다. 프로젝트를 포기한 아이들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프로젝트 주제를 바꾸는가 아닌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한게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안에서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는 배움이 무엇인지를 잘 질문해 주고 스스로 알아갈 수 있게 해주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도, 실패, 포기.. 모두 삶의 과정임을

시도하고 실패할 권리(證)

자신의 삶과 일상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가는 귀한 존재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시도하고 실패할 권리를 응원하고 증명하는 증서를 드립니다.

십만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나눠준 시도하고 실패할 권리증이다. 성공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에 앞서 실패가 가지는 중요성을, 또 그 중요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장을 아이들에게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성공이라는 세상의 잣대 앞에 만들어진 실패해도 된다는 흑백논리적 권리가 아이들에게 주어지기보다.. 모든게 다 기회이고, 모든게 다 제 삶의 일부임을.

그래서 과정마다 소중한 내 삶을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실패할 권리, 그것을 넘어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잣
대의 프레임을 깨고, 나의 삶의 서사 안의 모든 조각들을 사랑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 과정에 짝꿍(이
라 말할 수 있는 주변의 좋은 어른)이 아이들 곁에 존재하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상현

서로를 보며 배워간다



십대는 실패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경쟁이 심하고 그것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시험으로 아이들의 등급을 매기고 몇몇 선생님들은 그 점수로 아이들에게 편견으로 대하기도 한다. 그런 경쟁에 지쳐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있지만, 밖에서의 더 심한 경쟁의 구도에 다시 한번 좌절할 때도 있다. 십대들에게 ‘실패’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만 다가온다. 마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다.

십만원 프로젝트는 실패할 권리를 주는 프로젝트였다. 실패하는 것은 마냥 부끄럽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과정이기에 실패해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끝나보니 그것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아이들뿐만이 아닌 짝꿍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였다. 나조차도 아이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이겨보고자 했던 나의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물론 그 두려움이 말끔하게 사라지지 않았고 과정에서 나의 무수한 실패와 생각의 변화도 공존했다.

사라지지 않는 ‘1’

나의 십대 짝꿍은 어렸을 적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기에 미술로 대학을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결국 입시 미술

이란 정해진 틀에서의 그림이기에 어렸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학교 가는 길, 학원 가는 길에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들을 종이 위에 담아보기로 한 아이였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과정을 거치며 카톡을 보낸 지 한 시간...두 시간... 세 시간...이 지나간다. 틈틈이 확인해보지만 ‘1’(카카오톡에서의 읽음 확인 문구)은 사라지지 않는다.

‘급하게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얼른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이 되어서야 ‘1’이 사라지고 답장이 온다.

“선생님~ 공부하느라 핸드폰을 정지해놔서 확인을 못 했어요. 학원이 이제 끝나서 답장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때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며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처음엔 짝꿍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민보다는 연락이 닿지 않음에 답답함과 걱정도 있었다. 십만원 프로젝트의 의도를 알고 아이들을 만나는 나조차 나의 속도가 있기에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던 것은 사실이다. 하나 하나 이야기해 주고 말 걸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다려주고 바라봐 주는 것도 짝꿍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지만 참 어렵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음에, 결국 공부와 입시를 병행해야 하는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만 놓치지 않고 챙겼던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욕구와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삶을 팍팍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고, 일상이 지루하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결국 생각을 생각으로만 남기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기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생긴 것이 아닐까.

스스로 당당할 수 있는 힘

내가 만났던 아이들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십대들이었다. 혹여나 십만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아이들이 엄청나게 특별하고 소수의 아이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아이들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또 다른 짝꿍은 19살이었고, 특성화고에 다녀서 졸업 전 취직을 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프로젝트를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에 가기 전에 동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시작했던 프로젝트였다.

“저 회사 그만뒀어요.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이라 실제로 가보니 많이 달랐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하며 속상해하는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안도감이 들었던 것은 왜일까. 그리고 이 친구는 왜 고등학생인데 벌써 회사에서 겪는 일로 인해 포기하거나 회

피하는 경험을 해야 할까. 사회에서 고졸은 많은 차별과 실패를 거둔다. 그 과정을 거치며 단단해졌으니 괜찮다며 자위하지만, 그 안에서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열등감 역시 존재한다.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 또한 과정임을 알게 되는 순간 스스로 당당할 힘을 가지게 된다. 고졸에 대한 편견과 불합리함은 늘 존재한다. 그럼에도 아무렴 어떻나. 그제 취업이든 아니면 자신을 위한 시간이던 대학에 가지 않는 4년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친구는 다시 취업했고 바빠졌다. 연락은 잘되지 않았고 짝꿍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하던 나는 조금씩 불안하고 조급해졌다. 하지만 나의 걱정과는 달리 매일 출근하는 와중에 주말과 퇴근 후에 일상 속에서 프로젝트를 병행하며 자신의 가치를 쌓아 올리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친구는 공유회에서 당차고 밝게 자신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반짝거렸다. 자신의 당당함이 생긴 것 같은 모습이었다. 어쩌면 나보다 나은 십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만의 생각과 경험으로 아이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뇌리에 깊게 박혔던 날이었다.

**“프로젝트 지원금은 십만원이지만
너희에게 주는 관심과 응원은 몇억 원어치야”**

십만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모모 날에 아이들에게 저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에 강하게 남는다. 아마 그 과정에서 나는 몇억 원어치의 관심과 응원을 나의 ‘짝꿍’들에게 보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그저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괜히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닌지 늘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안부를 물어보는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힘을 내는 아이들을 보며 불필요한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은 길게 걸리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은 ‘믿음’을 바탕으로 되어야 한다.

늘 그들을 믿어주고 응원해 주는 것, 성공이든 실패든 가리지 않는 것, 도움을 원하는데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 때로는 아이들을 믿고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아이들의 일상 속에 잘 녹아들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꾀다.

아이들의 실험보고서

“당당하게 스스로 만든 시간을 음미하기”



단돈 십만원으로 과감하고 발칙한 실험과 실패를 경험한 십대. 이들이 스스로 쌓고 만들었던 시간은 어떠한 이야기보다 소중하고 가치로웠다. 그렇기에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었음 했고, 이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천천히 깊게 공유되는 마무리 자리이길 바랐다.

아이들은 스스로 만들었던 시간이 얼마나 의미있고 가치로운지 사실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에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인지는 과정에서 스며든 감각들을 스스로 ‘사고’하며 정리해내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스스로 사고하고 정리의 과정을 깊게 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성장을 인정하고 표현할 줄 알게 된다. 타인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 익숙한 지금, 스스로 자신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장의 깊이를 더하는데 큰 힘이 되어준다.

그래서 어떠한 과정보다 정리의 과정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만든 과정을 ‘결과중심적’ 마무리가 아닌 ‘과정중심적’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결과로 판단하고 결과로 평가받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결과중심적 사고가 너무나도 익숙하다. 심지어 과정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결과로 평가받으며 뒷통수를 맞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십만원 프로젝트는 스스로 과정의 중요성, 과정을 바라봐주는 문화의 감각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직접 만나 되돌아보고 정리해내는 과정을 깊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마무리 시기에 아이들이 직접 배움터에 찾아와 이야기 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래서 실험보고서의 질문과 형태에 대해 고민이 많아졌다.

다음과 같이 짧게 편지를 적어보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시도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움직임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자극받고 짝꿍들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어서 고마운 시간이었어요.

(...)질문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정성껏 글을 적어봐 주세요. 보고서에 특별한 틀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글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보고’가 아닙니다. 마을배움터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도 아닙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시도한 것에 대한 기록이며 돌아보기입니다. 아마 10년 후에 이 글은 각자에게 엄청난 역사의 기록이 되겠지요? 자신을 위한 진한 기록 시작해보세요! ^ _ ^

아이들과 함께 읽고 싶었던 책 구절을 적어보기도 하고,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일에 휘말리는 위험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꿈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것은 순진해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보상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사는 것은 죽는 위험을,

 희망을 가지는 것은 절망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시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은 감수해야만 하는 것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므로.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므로.
 그는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배움을 얻을 수도, 느낄 수도, 변화할 수도,
 성장하거나 사랑할 수도 없으므로.
 확실한 것에만 묶여 있는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같다.
 오직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 자넷 란드 <위험들> 중에서

그동안 함께 하며 있었던 시간을 떠올릴 수 있게 질문을 건네기도 했다. 다
 음은 아이들이 썼던 보고서를 몇 개를 골라 요약해서 첨부했다.

**아이들의
십만원 프로젝트 실험보고서
자세히 보기**

‘길고양이 행복 프로젝트’

실험보고서

Q. 자신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길고양이 ‘행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김진희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학생 캣맘이라는 계정으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길고양이 밥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사진 촬영과 소식을 전해드릴 글을 쓰고,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엽서 판매 등을 하고 있습니다.

Q.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가 그대로 인가요?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길고양이들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변질되지 않는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에 있어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부터 길고양이들을 챙겨주며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제가 좋아서 스스로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은 것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단순히 밥을 챙겨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삶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저 혼자였다면 도전해보지 못했을, 구하지 못했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응원받고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을 주고 많은 관심과 격려가 가져주는 용기에 저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과정과 시간을 저와 함께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프로젝트를 하며 스스로 발견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저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만남이었고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계획했던 유튜브를 포기하고 유튜브와 연계되는 아이디어들을 포기 해야 해서 아쉬웠지만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계획해 실행할 수 있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저로 인해 변해가는 행동과 생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

며 정말 특별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후에 어떤 실험 혹은 시도를 이어가고 싶나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길고양이들의 행복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 나가려 합니다. 다만 길고양이 행복 프로젝트와 함께 이번엔 나를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 해보고 싶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나만의 전시도 해보고 싶습니다.

Q. 마을배움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이런 경험들이 저와 같은 십대 친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불완전하고 어리지만 그렇기에 더 이런 경험들이 십대 친구들에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도전하고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전을 하고 실패했을 때의 기분과 경험, 성공에서 나오는 부딪힘과 경험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짝꿍 민정쌤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제가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셨던 것처럼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십대가 먼저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이 판단해서 행동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월별	내용	인상 깊었던 것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것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지급된 1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를 고민. - 처음 계획했던 대로 유튜브를 시작하려 했지만 길고양이들의 특성상 빛이 없는 저녁에 촬영하는 것이 어려워 인스타로 계정을 만들어 어떤 글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아이디어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한 고양이 '제니'의 입양 홍보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인스타라는 SNS를 선택.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보 캣맘, 캣대디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 공유와 수의사님 인터뷰의 아이디어가 일 단락. (인터뷰 해주시길 수의사님을 모색하는 일도 어려웠음) - 지원금으로 고양이 사료와 약 값 사용 - 마을배움터의 도움으로 엽서를 만들어 판매할 기회가 주어짐. 많은 사람에게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림. - 엽서 판매글을 처음으로 인스타를 시작 - 구조한 고양이 '제니'의 입양 - 관상용으로 취급되던 '하니'의 구조와 입보 - 엽서판매금과 후원금의 사용 내역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이 '하니'가 (임시 보호)가족과 함께하며 같이 소중한 추억을 만든. - 길고양이들을 대하고 생각하는 가족들의 태도와 생각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어 인상 깊었음.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챙겨주는 길고양이의 사진과 함께 길고양이의 소개와 소식을 전함 - 관상용 고양이였던 '하니'의 한평생 함께 할 좋은 가족을 만남. - 하니가 쓰던 물품들을 길냥이 어울 쉼터에 기부함. - 길고양이 '아리'와 '시도'의 TNR 소식 - 엽서판매금과 후원금의 사용 내역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이 '하니'가 평생을 함께 할 좋은 가족을 만나 앞으로 함께 하게 되어서 기뻐함. - 길고양이 '아리'와 '시도'가 TNR을 통해 더 이상 번식으로 고통을 안 받게 되어 다행이지만 미안함.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 다른 관상용 고양이 '케이'의 이야기와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를 통해 함께 분노, 생각해 주셨던 분들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에서의 첫 엽서 판매 - 온라인을 통해 처음으로 사료와 캔 후원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 한 번 응원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듦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

(청소년 자해 편견 깨기)

프로젝트 실험보고서

Q. 자신을 소개해주세요!

김지우, 느긋하며 남을 잘 믿는 성격이 장점이자 단점 프로젝트 전체가 역할. 마감에 치여 사는 글쟁이.

Q.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가 그대로 인가요?

기본적인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앙케트로 여러 의견을 듣고 조사를 해가며, 해결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의 비중이 예전보다 커졌다. 조사해가며 여러 방법을 알게 되었고 내 프로젝트와 연결한 방향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저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과정과 시간을 저와 함께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프로젝트를 하며 스스로 발견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평소 소극적인 편이다.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 두려움이 컸는데 막상 하고 나니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 놀랍기도 했고 성장한 기분이 들었다. 다양한 사례를 읽고 앙케트에서 경험담도 들어보며 울컥하는 기분이 들고는 했다. 그들이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졌다. 고입과 다른 일로 프로젝트 진행속도가 느려졌고, 스스로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때 느낀 공감은 끝까지 해나가야겠다는 마음의 원동력이 되었다.

Q. 이후에 어떤 실험 혹은 시도를 이어가고 싶나요?

인터뷰를 시작해 구체적인 자료 모으기, 논문 등 자료조사 조금 더 하기, 그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자해 청소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서 집필.

Q. 마을배움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사회의 십대는 공부에 대하여 몰아 붙여지는 대신 다른 현실적인 일에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다. 스스로 책 읽겨본 경험이 없어 미숙할 수밖에 없

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십만원 프로젝트에서 나만의 책임을 느끼며 성장하게 되었다. 다른 십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나를 지지해준다는 것이 좋

았다. 이대로 십만원 프로젝트의 학생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셨으면 한다. 십만원 프로젝트 참여자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네트워크가 좀 더 끈끈하게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Q.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시기	내용	인상 깊었던 것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것 등
초반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를 디자인하라 책 구매하여 인터뷰의 기술 배우기 . - 짝공생과 프로젝트의 방향 잡기 . - 짝공생과 대화를 통해 프로젝트에 담을 이야기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 	<p>인터뷰의 기술 -공감을 통해 인터뷰이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질문법을 배웠다. 짝공생과 이야기하며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알게 되었다.</p>
중반 (9월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과 기사를 찾아보며 자료조사 . - 양케이트를 위한 부스 준비 . - 부스에서 세 가지 질문 (자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자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난 자해 청소년 수) 에 대한 양케트 진행 . - 양케트 일 바탕으로 글 작성 . - 양케트 결과를 짝공생과 분류, 되짚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을 인쇄해서 형광펜치던 일 - : 자살과 자해의 차이 알게 됨 . - 부스 준비하다가 손이 공업용 커터 칼에 베었던 일 . - 개관식에서 만난 호의적이지 못한 사람과 호의적인 사람들 .
후반 (11월 ~12월)	<p>'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 '읽기 양케트 결과 바탕으로 글쓰기 .</p>	<p>양케트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 놀람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를 읽은 이후로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p>

프로젝트 중에 썼던 글*1번 (8 . 29)**

이타심의 기본은 이기심이다. 나는 이 상주의와 자비를 약자의 복수라고 말했던 니체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얼핏 이타적이고 공익적이기까지 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지독한 이기심에 기반했음을 알기 때문이다. (...중략...)

‘자해’에 대한 이 프로젝트는 그 이기심의 일환이다. 열 명 중 한 명 가량의 청소년은 자해 경험이 있다. 그만큼 아픈 청소년이 많다는 소리이다. 하지만 사회는 자해 청소년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모른다. ‘크면 다 나아질거야.’ 나 ‘자살의 반대말은 살자.’와 같이 흔하게 던지는 답변은 청소년의 냉소를 불러일으킨다. (...중략...)

나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 보고자 한다. 나는 자해를 해본 청소년, 청소년과 만나는 어른들, 자해를 해보지 않은 청소년 등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계층별 서로 다른 시선을 조사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걷어낼 것이다. 그 다양한 관점을 글로 정리해,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그것이 자해라는 현상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서 더이상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서로 치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중략...)

내 프로젝트가 한 사람의 생각이라도 바꾸고, 한 사람이라도 위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길 바란다고,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나라도 더 살리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동아줄처럼 매달려야 한다. 고로 나는 내 이기적인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버리지 않겠다 결심한다.

2번 (9 . 30)

(...중략...) 처음 짝꿍 선생님이 부스참여를 제안해주었을 때, 나는 난색을 표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활동은 무리가 있어서요. 얼굴이랑 목소리가 드러나는건...되도록 피하고 싶어요.”

과도한 걱정이라도 생각될지도 모른다. 하나, 자해 청소년, 혹은 그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에게는 당연한 사고방식이었다. 그들은 항상 두려워하니까. 붕대로 손목을 감추고, 찌죽을 것 같은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다. Sns의 익명 뒤에 숨지 않으면, 불안에 떨지 않으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없다.

얼핏 들려온 자해 관련 대화에, 숨을 죽여본 자해 청소년이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학교에도, 자해하는 애 있나? 으으, 왜 그런걸 하지? 좀 신기하고 이상하긴 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내 요란한 심장소리를 듣고 그들이 나를 찾아낼까, 애써 호흡을 참았던 경험이 있는 자해 청소년이라면. '라고 주장하듯, 더 밝고 무해한 모습으로 웃어야만 한다.

(...중략...) '자해'라고 써진 양케트 상자를 힐끗 바라보고, 나와 눈이 마주친다. 나는 밝게 웃어 보인다. 얼핏 굳었던 상대의 얼굴 위 예의바른 미소가 떠오른다. 나는 그 상냥하게 선을 긋는 표정을, '어른의 미소'라고 부른다.

어른의 미소는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주제라..."라고 말하며 목례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있다. 부드럽게 웃으며 악수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대화 없이 떠나가던 정치인의 얼굴에서도 포획할 수 있었다. 급히 들어가 봐야 할 곳이 있어서, 혹은 더 생각해본다고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있다. 나는 그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조금 막막해질 뿐이다. 민감한 주제를 부드럽게 넘기는 법을 어른들에 가르친 세상의 무게와, 그 중압을 굳센 방벽처럼 우리 사회에, 내가 앞뒤로 막힌 길을 걷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일 뿐이었다. (...중략...) 요약하자면 딱봐도 겁나 힘들 것 같다는 뜻이었다. 그래도 나를 버티게 해주는 뭉클함도 있었다.

양케트 용지에 고개를 박고 적느라, 내 시야에 무방비하게 드러난 까만 정수리들. 부스를 기웃거리며, 선한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눈동자들 몇몇. "자해를 하는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요?" 조심스럽게 질문하던, 어리고 진지한 어른들.

나는 그 장면들을 먹고 버텼다. (...중

략...) 그때, 양케트 상자에 뚫린 투입구로, 쪽지 하나의 내용이 내 눈에 들어왔다.

사실 명확하게 말한 것은 아니었다. 나도 스스로 아프게 해본 적이 있노라고. 내 착각이었을까. 과대해석일까.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꼭꼭 눌러쓴 감정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목이 메어왔다. 그런 무심한 표정들로 스쳐 지나가면서, 곤란해하면서, 그 안에도 함께 있었구나. 이 작성자의 심장도 내 것이 그러곤 했듯 쿵쿵

쿵쿵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이 뛰었겠지. 누가 쪽지 내용을 보기라도 할까, 주변을 경계하며, 화다닥 날려쉴을 두려움이 눈앞에 그려졌다.

나는, 슬슬 노을이 비추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게 내가 이걸 하고있는 이유구나.

아무도 봐주지 않고, 모두가 시선을 피하는, 그런 일들.

그것은 어쩌면 내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당신들 때문이었다.



‘보탬’

(직접 만든 반지 브랜드 이름)

프로젝트 실험보고서

Q. 팀을 서로 소개해주세요!

김서윤: 서윤이는 궁금한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팀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그중 계좌를 만들고 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또 디자인 관리, 역할 분담, 상품 제작 등 많은 일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신우주: 우주는 저희 팀의 조장으로서 가장 수고를 해준 친구입니다. 전반적인 아이디어와 틀을 잡아주어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정다은: 다은이는 한창 바쁘고 입시를 지내느라 많은 일에 함께 참여하진 못 했지만 마음으로 라도 열심히 응원해주며 함께 노력했어요! 특유의 냉철한 시선으로 저희 보탬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잡아주었습니다!

Q.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가 그대로 인가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뭐랄까 당돌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3은 추억을 쌓는 것에 집중하기보단 다가올 미래에 대해 준비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 현실로 와 다았던 것 같아요. **처음 계획을 세울 땐 모든 일을 예상했던 것처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바쁜 일상 속에 10만원 프로젝트는 무조건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에 틈틈이 진행하는 와중에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처음엔 다른 블로그 마켓의 단점들을 보면서 그 단점을 커버하지 못하는 블로그 마켓이 답답했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보니 동경심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 있어요! **지금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성공해보고 싶어요!**

Q. 프로젝트를 하며 스스로 발견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0만원 프로젝트의 주제가 결과에 상관없이 쓸데없는 짓 하기 였던걸로 기억

하는데요 저는 어떠한 여정 속에서 행복을 쫓아 걷는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행복과 나란히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이 여정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차 있었지만 나아가서 앞으로는 그 여정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것들로 차있다 해도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덧붙여 이야기 하자면 시도하는 것, 즉 도전한다는 것은 자신 있는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끝도 볼 수 있다고 느꼈어요. 저희 또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쳤고 나름의 가치도 있었어요..

시도함으로써 저희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저의 모습들을 알게 되었고, 몰랐던 친구들의 모습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시도하면서 제가 제 생각보다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도 자신의 몰랐던 모습을 발견 했을거라 생각해요. 어느 순간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프로젝트는 바쁜 생활 속에서 조

금의 틈이 나면 혼자서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회의하는 것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프로젝트 도중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 멘탈 붕괴가 오기도, 근거 없는 자신감에 명당 60만원을 벌 거라는 환상까지 거쳤지만 말이지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모님, 선생님께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튼튼 **십대의 이상한 짓거리 정도로만 보지 않고 진심으로 조언을 해준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했어요.

사실 아무것도 팔지 못했으니까 결과만 봐서는 실패가 맞지만, 저는 반 성공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만큼 실패라고 단정 짓기에는 제가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얻은 게 너무 많은 것 같기 때문이에요. 비록 십만원 프로젝트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시작할 수 있긴 했지만, 또 굉장히 작은 규모였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기분도 좋고, 주변에서 시도한 것조차 대단하다고 해주는 칭찬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윤이, 다은이와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었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

래서 앞으로도 이번 도전처럼 계속 시도 해보려고요! 작은 시도였지만 제 나름대로 부족한 시간과 책임감 안에서 곤혹을 치르기도, 서운이와 헛된 망상을 하면서 수다를 떨었던 것도,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저를 성장시킨 것 같아요!

Q. 이후에 어떤 실험 혹은 시도를 이어가고 싶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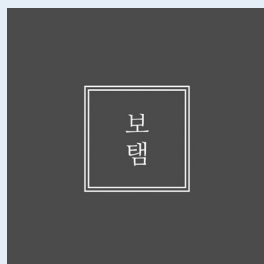
사실 저희는 진로가 다 다르고 가는 고등학교도 다 다르기에 무언가 도전하고 시도한다기보단 바쁘겠지만 가끔 모여서 밥도 먹고 지금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Q. 마을배움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십만원 프로젝트 같은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정해진 일을 하는 숙제 같은 일상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고 해나가는 추진력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저희 또한 그렇고요! 느린 프로젝트 진행에도 항상 옆에서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바쁜 저희를 이해해주시고 그런 와중에도 직접 전화까지 해주시면서 조언해주셨던 점 너무 감사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월별	내용	인상 깊었던 것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것 등
8월	프로젝트 구상 : until rise에 맞는 귀걸이 등을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맞게 알아보고 구상함.	무엇보다 소중했던 기억은 마을배움 터에서의 재미있던 추억!!
9월	아이디어, 제품 구상 : 가로수길, 익선동 등을 다니며 약세사리들을 직접 보고, 동대문 부자재 사이트를 활용해 제품 수량, 구매해야 할 것들까지 준비함	
10월	다시 시작 : 동대문 부자재 1차 쇼핑을 나갔다가 휴무라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옴. 더 알아보던 중, 독특한 반지 디자인을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모든 컨셉을 뒤집게 됨. 프로젝트 이름을 보탬으로 바꾸고 아이디어 다시 구상 후 동대문 부자재 1차 쇼핑을 감. 동대문 근처 카페에서 바로 제작.	그냥 돌아온 날, 그 전에 준비를 너무 철저히 해놨기도 했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간 거라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서윤이랑 저랑 이별 택시의 유명한 한 소설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부자재 시장을 맴돌던 기억이 나네요ㅋㅋ
11월	제품제작과 홍보 : 제작한 후 1차 쇼핑 때 샀던 것들이 적다고 느껴 동대문 2차 쇼핑을 감. 2차 쇼핑을 하고 관찰은 카페에서 반지 제작 후 사진 촬영. 사진 촬영 후 적당한 보정을 하고 네이버 블로그에 판매 글을 올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홍보, 스타일쉐어 계정을 만들어 홍보함.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은 것.. 네이버 블로그를 다루기 까다로워서 4시간 동안 날렸다 지웠다 썼다를 반복했던 일이 기억에 남네요..



자랑스러운 저희의 보탬 마크예요! 사실 포토샵을 할 줄 몰라서 조금 당황했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옥이 들어간 게 포인트인 프로젝트 컨셉에 맞게 애매한 청록색으로 정했어요ㅎㅎ



주인공이 되어 나의 이야기 공유하기



당당하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

첫 눈이 내리던 날.

십만원 프로젝트 친구들이 주인공으로써 전시회와 이야기 콘서트를 열었다.



실험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땠는지 같이 돌아보았고, 돌아보기 안에서 고마웠던 것, 값진 순간들, 웃긴 일들, 기대하지 못했던 변화들, 새로운 발견들이 나누어졌다. 스스로 정리한 나의 성장과 나의 의미를 타인에게 표현하고 공유하고 진정 어린 박수와 응원을 받는 일은 중요하다.

‘내가 정말 잘했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는 의문과 의심이 나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표현하고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당연한 자부심으로 변신할 기회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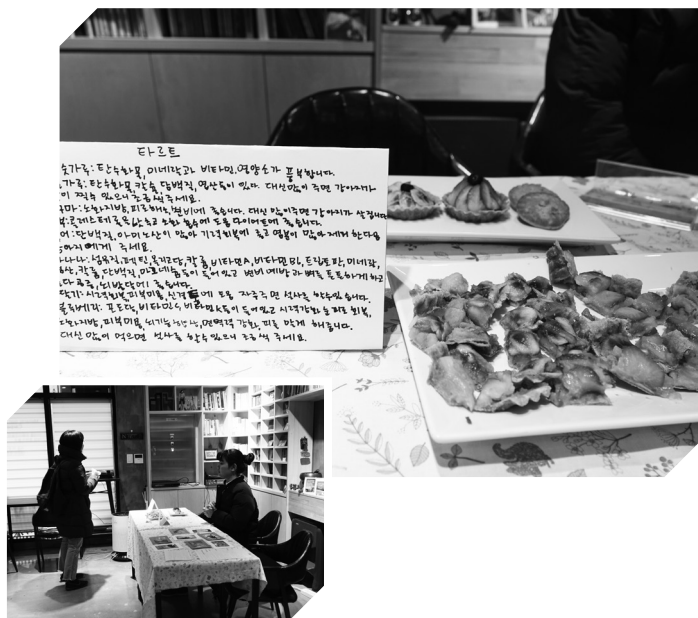
직접 실험했던 음식, 일상에서 그렸던 그림, 끄적였던 글, 직접 만든 악세사리, 과정을 기록한 책 등을 전시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큐레이터가 되었다. 흡사 우리들의 첫 만남에 준비했던 십만원 전시회를 아이들이 이어받은 듯했다.

숨겨진 사실 중 하나. 짝꿍들은 호수 위 백조처럼 보이지 않게 발을 열심히 휘저었다. 아이들이 공유하고 싶은 전시의 내용과 이야기를 더 가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짝꿍들의 역할이고, 특히 공유회에서 자신의 이야기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박수받고 응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짝꿍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전시회를 보러 간 경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전시를 해본 경험은 더 없는 아이들이기에 각 짝꿍은 보이지 않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돋보일 수 있는 위치, 조명, 방식 등을 고민했다. (분명 아이들이 한 것인데 왠지 더 멋져진 은근슬쩍 스킵이랄까^^)

전시&이야기 콘서트

'십만원을 내맘대로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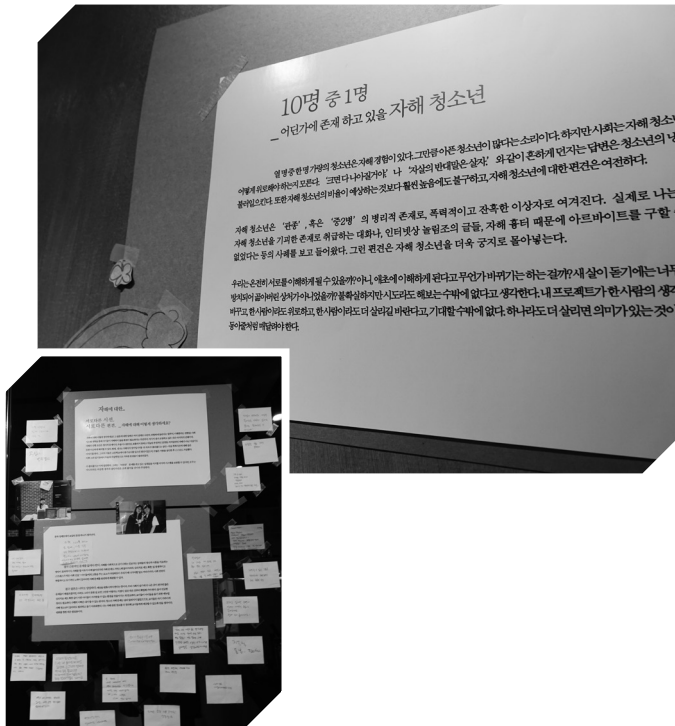
그날의 풍경들



질문을 10가지 하면 수줍게 ‘네’ 하고 소리 없이 웃던 은세는 프로젝트를 하며 배곡하게 적었던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아난 음식, 은세가 만들었던 강아지 간식 레시피를 공유회에서 공유했다. 작은 글씨로 배곡히 채워 자랑스럽게 걸었다. 그리고 직접 만든 강아지 간식을 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전시했다. 곳곳이 허리를 세우고, 수줍은 목소리로 “제가 만든 강아지 간식이에요. 드셔보세요”라며 처음 보는 이들에게도 먼저 말을 거는 은세의 목소리에 당당함이 묻어났다.

길고양이를 챙기던 지난 과정을 스스로 가장 잘 기록했던 진희는
그간의 기록을 엮어 책을 전시했다. 진희가 이름 붙인 10마리 정도의
길고양이들의 이야기와 첫 입양을 보내기에 성공했던 길고양이의
이야기까지 진희는 언제나 그렇듯 그곳에서도 길고양이 사료값을 위해
만들었던 엽서를 열심히 팔았다. 전시회에 와주셨던 많은 분이
차분히 앉아 진희의 책을 들춰보았다. 진희는 누군가의 칭찬에도 누군가의
인정보다 사랑하는 길고양이들의 평화를 바라고 있는 듯하다.





‘이 친구의 세계를 잘 모르겠어’라며 짝꿍이 이야기했던 지우.

그만큼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한 지우다. 지우는 청소년 자해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책을 만들어보고자 했지만, 책은 만들지 않았다. 함께 이야기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자해, 청소년에 대한 편견, 내가 가진 편견에 관해 공부하고 글을 쓰며 이번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자신이 썼던 글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언제나 저려저려한 목소리와 뚫망한 눈빛으로 “청소년 자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며 물으며 당차게 어른들을 당황하게 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도 연락이 잘 닿지 않던 승비.
 그로 인해 짝꿍은 시들시들 맘고생을 했었다. 공유회 당일도 학원을 다녀와야
 해서 가장 늦게 도착해 부랴부랴 자신이 그동안 그렸던 그림을 벽에 걸었다.
 그림 한 장 한 장 갖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이 그림 참 좋죠?”라고 먼저 물으며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수줍게 웃었다.
 입시미술과 학원으로 여전히 똑같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승비이지만,
 프로젝트를 하고자 했던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린 듯하다.

뒤늦게 프로젝트를 시작한 동준이.
 의미 있는 여행을 가겠다고 당차게 시작했으나, '의미'와 '가치'의 무게로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함을 깨달았다.
 결국, 판짓을 하겠다고 그동안 가볍게 여기던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프로젝트로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사색에 잠기기도, 못 느끼던 행복을 느끼기도 했다.
 그 시간에 썼던 글을 있는 그대로 전시했다. 글이 조금은 어둡다.
 하지만 걱정보단 동준이가 서 있는 지금을 있는 그대로 함께 바라봐주니 동준이는
 어두운 친구가 아니었다. 집에 참 멀었던 동준이가 공유화가 끝나고
 “ 쌤, 저 자주 와도 되죠?”라며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유일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19살 유진이.

첫 직장생활로 정신없는 와중에 틈틈이 동네 카페를 돌아다니며
동네 카페홍보 웹사이트를 개발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유진이의 모습이 소중한.

회사 때문에 연락도 쉽지 않았고, 프로젝트 진행도 어려웠지만,

자신이 해 보고 싶었던 일을 천천히 풀어갔음이 느껴졌다.

전전긍긍했던 짝궁이 민망해질 만큼... 미완성인 웹사이트를 걸으론
부끄러워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에는 스스로 느끼는 뿌듯함이 만져졌다.

아무도 전시를 하고 싶지 않다며 짝꿍을 난감하게 했던
 우당탕탕 19살 5인방 레진공예팀.
 왜 공유회를 하고 왜 전시를 하는지 설명해주고
 그 선택은 너네가 하는 것이라며 선택을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했더니
 어느새 주섬주섬 자신들의 레진공예품과 활동사진을 전시했다.
 그러곤 다른 친구들 전시를 보며 우주 최고의 리액션으로
 다른 친구들을 응원해주던 보기 드문 19살 친구들이다.
 대학과 취업 그리고 실존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항상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뒷정리를 도와주던 모습이 참 소중했다.



비글미가 넘치는 16살 단짝 친구 3인방. 악세서리 블로그 마켓을 열어보겠노라 했으나 결국 수입 0원. 하지만 세 명 모두 실패가 아니라며 자신만의 의미를 당당하게 찾았던 친구들이었다. 직접 만든 반지와 팔찌를 가져와 선물이라며 선생님들에게 건넸다.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며 자신들의 악세서리를 설명했다. 전시회던지, 실험이든지, 새로운 시도든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멋진 친구들이었다.





일정이 맞지 않아 전시회 당일에
얼굴을 비추지
못 한 두 친구가 있었다.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만들었던 옷을
전시하겠다고 미리 책상에 걸어두고 갔다.

직접 옷을 만드는 방법으로 부스를 열어
30장을 완판했던 그 옷.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 옷을 보며 미소 짓게 되었다.

공유회 당일 잠수를 탄 영준이.

프로젝트 과정 내내 짝궁의 속을 애대웠던..

영준이가 공유회 날 이틀 전부터 연락이 닿질 않았다.

짝궁의 속이 까맣게 났다.

영준이는 공유회 이후 지금도 여전히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한창 바쁜 12월. 그럼에도, 많은 분이 찾아와주셨다. 60여 명의 사람이 모여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모습. 아이들의 보고서를 한자리에서 서서
모두 다 읽어주셨던 모습들 한 분 한 분 기억에 남는다.

아이들의 살아있는 언어를 바라보았던
어른들은 무엇을 가져갔을까.





무덤덤한 듯, 긴장한 듯, 부끄러운 듯
제 각각의 모습으로 4명의 친구가 앞으로 나왔다.

프로젝트를 하며 어땠는지,
많은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저렝 저렝 울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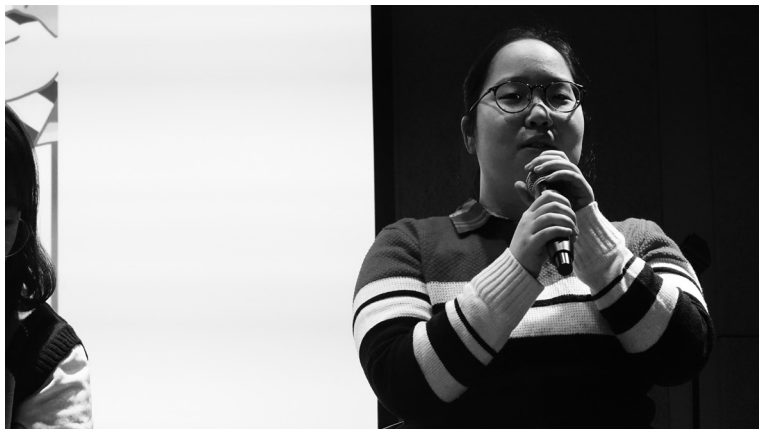
“저는 어떠한 여정 속에서 행복을 쫓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행복과 나란히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이 여정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아가서 앞으로는 그 여정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것들로 차있다 해도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시도하는 것, 즉 도전한다는 것은 자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 일을 해나가야 끝도 볼 수 있다고 느꼈어요. 저희 또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쳤고 나름의 가치도 있었어요.”

- 김서윤-



“저는 길고양이 행복 프로젝트를 하며 주변에서 응원해주고, 저의 활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제가 하는 프로젝트를 보고 자극을 받아 길고양이를 챙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길고양이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더 큰 응원을 받은 느낌이에요. 십만원 프로젝트가 끝나 나더라도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지속해나갈 힘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 김진희-



“저는 이제 20살이 되는데요.

19살에 십만원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마을배움터를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공부도 하기 싫고, 집에도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그저 그런 시간을 흘려보내는 19살을 보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없었겠죠.

고3이긴 했지만 고3의 이름보다 19살로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레진이팀! 애들아!! 사랑해!!”

- 정승연-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사람들 앞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그림으로써
내가 그림에 흥미가 들게 된 걸 알 수 있었어요.”

- 김승비-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었어요,
 막상 신청했을 때도 막막했고,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는데
 시작하고 나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주제를 정해놓고 해보는 게 처음이라 설렘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가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기회인 것 같아요!”

- 강예빈 -

“평소 소극적인 편이에요.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 두려움이 컸는데 막상 하고 나니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놀랍기도 했고 성장한 기분이 들어요.
 다양한 사례를 읽고 경험담도 들어보며 울컥하는 기분이 들고는 했어요.
 그들이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느낀 공감은 끝까지 해나가야겠다는
 마음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 김지우 -

“고3이라는 나이에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친구와 서로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며
 친밀해진 우리를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 김윤정 -

“오늘 콘서트를 너무 즐겁게 봐서 여운이 오래갈 듯하네요.

프로젝트 준비과정 얘기에서 선생님들이 청소년 친구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타의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이
프로젝트가 그들에게 얼마나 크고 빛나는 조각들로 남을지 감히 상상이 되었어요.
그 조각들이 친구들에게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본인만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게 해주고 또 자신감과 추억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혼자 감동과 에너지 전하게
받고 갑니다.”

- 청년 예술가 이유지 -

자기가 자신의 기회를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어찌 되었든 거창하게 이것을 하면 돈을 줄 것 같고,
이걸 하면 안 줄 것 같은 논리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걸 마음껏 하며 스스로 질문이 되고
그 질문이 다른 사람에게 또 질문이 되는
프로젝트가 되길 바랍니다.”

- 인디플러그 고영재-

“아이들 보고서에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이야기가 참 많더군요.

저도 청소년을 만나고 있어요. 저에게 질문하게 되네요.

정말 나는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있었나?

우리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법을 정말 알고 있나?

아이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기다림’과 ‘여백’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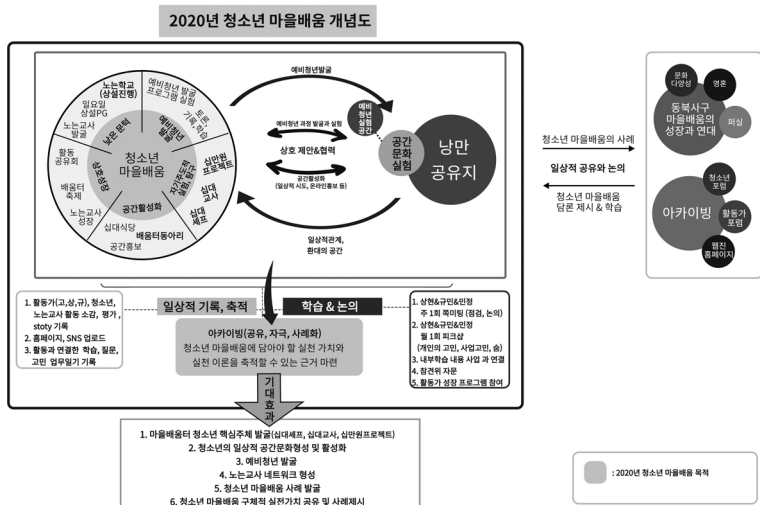
- 도봉 청소년 네트워크 이음 전정훈-

나에게 십만원 프로젝트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깨는 일 /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의 시선에 대해 많이 두려웠는데 / 활동을 끝내가며 세상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따뜻한 곳임을 깨달았다 / 김지우 / **신발** / 꿈으로 한 걸음 더 /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 마영준 / **소중한 보물** / 강아지 간식도 만들고 / 나만의 레시피 노트도 만들고 강아지가 먹어도 될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찾을 수 있었다 / 고은세 / **시작** / 나 스스로 / 하고자 해서 시작한 첫 번째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 **강예빈** / 야베스 / **이유** / 정당한 이유로 갑갑한 학교를 벗어나 친구들과 의미 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원인 / 지금의 내가 / 귀한 인연을 만나 소중한 경험 / 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시간 / **나에게 십만원 프로젝트란** / 손영희 / 김승비 / **넷플릭스** / 그냥 봐도 재밌고 골라봐도 재밌기 때문 / 김윤정 /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함께 변해감을 느꼈다 / 관심과 응원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 내 친구가 이런 사람인줄 몰랐다 / **나도 몰랐던 내 모습에 감동** / 진심으로 대해주는 마음 / **십대의 이상한 짓이 아닌 진지한 짓이라는 것** / 결과는 실패 과정은 성공 / 나의 헛된 망상을 바라보는 계기 / **숙제 같은 일상의 선물** / 혼자였으면 도전해보지 못했을지도 / 막상 해보니 재밌는 거 / **나의 두**

러움을 깨보니 큰 힘으로 돌아왔다 / 평생 무기력하게 살아갈
 뻔 했는데 다행이다 / 고3 그 까짓거 / 공존을 가르쳐주
 는 배움 /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공부하고 찾아보게 되었
 다 / 어느새 배우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 김진희 / 잊지 못할 추
 역 / 고3 / 가장 바쁜 시기 / 가장 하고 싶은 걸 하면서 / 재밌게
 많은 걸 경험했고 많은 걸 배웠다 / 덕분에 고3 시절은 내게는 잊지 못
 할 추억이 되었다 / 김지은 / 생각 의자 / 생각해보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 / 난 아직도 모르는 것들로 가득하다 / 김동
 준 / 인연 / 친구들과 인연이 더 깊어졌고 / 배움터라는 / 새로
 운 인연도 / 만났다 / 이예진 / 호기심에서 출발
 한 여정 / 순전히 호기심으로 가볍게 신청했는데 / 막상 프
 로젝트를 시작해 보니 / 마치 차근차근 계획하는 여행 / 정다운
 / 한 권의 소설책 / 이유진 / 김서윤 / 어쩌다 보니 다해버렸
 다 / 실패가 실패가 아니었다 / 함께 해주어 가능했다 / 나는 생
 각보다 실패를 두려워 하는 것 같다 / 나의 힘은 내가 생각한
 걸 행동으로 옮길 때 생겨나는 걸 알았다 / 우리 머릿속엔 각
 자의 세상이 있구나 / 제대로 못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 나 스스로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 / 레진공예팀 /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응원받는
 건 처음임 / 기다려줘서 고마웠던 시간

2020년 청소년과 마을배움, 좌충우돌은 계속됩니다.



마을배움터 청소년 사업의 핵심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주체,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경험적 씨앗을 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직 '민주시민'이라는 언어를 소화하고 있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 방향성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자율성을 되찾고, 다른 존재를 이해해보는 소소한 다른 경험을 통해 다양성을 되찾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찾아가고, 그리고 함께 하는 타인,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숨쉬는 지구와 나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씨앗을 마을배움터에서 심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심어지는 과정을 위해 시도하고 실험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가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와 활동가의 고민과 경험, 소중한 이야기들을 축적하고 공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Z세대라 불리는 아이들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2019년 6월 말에 마을배움터에 입주하고, 벌써 반년이 훌쩍 흘렀네요. 아이들은 아직 마을배움터를 일상적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 말곤 쉽게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웬만한 길로는 아이들의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고, 배움의 욕구가 많이 사라졌고, 새로운 것에 기웃거리볼 마음의 여유가 없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굳이 나서기 쉽지 않는 등등...

청소년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일상성’입니다. 일상적 접촉과 관계, 일상적 사건과 경험들이 청소년에게 자기 삶의 다양한 방향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자극을 만들기도 하고,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자기 가치관과 태도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엔 아이들이 마을배움터에 많이 와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기록하려 합니다. 단순히 참여자가 늘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자극들을 다른 경험, 다른 관계를 통해 접촉해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단발적이거나 파편적 교육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다른 자극과 배움이 이어질 때, 다양한 삶에 대한 기대와 실천을 해나갈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매력을 탐구 해야하고, 보통의 일상에서 자극받지 못하고 있는 건강한 자극들을 과정 안에 꾸준히 녹여보아야 하겠지요. 일상적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도와 청소년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볼 수 있는 경험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보려 합니다.

노는학교

노는학교는 ‘마을배움터에 한번 가볼까?’ 하는 아이들에게 낮은 문턱이 되어줄 예정입니다. 다양한 배움의 과정을 시도하고 실험하며 서로 다른 영역과 세대가 접촉합니다. **단발적인 프로그램이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사도 참여자도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는교사를 찾아 나서려 합니다.

노는교사에는 물론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스스로 배움을 만들고, 나누는 경험을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진행합니다. 다양한 노는교사가 함께하는 만큼 마을배움터도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할 생각에 기대됩니다. 각 교사가 가진 지향과 방식 그리고 의도와 고민이 기록되고 공유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실험 프로젝트

십만원 프로젝트

20년에도 십만원 프로젝트는 이어집니다. 마을배움터의 역할은 청소년들의 탄생을 한결같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응원하는 것일 테니까요. 19년에 참여했던 아이들 몇몇은 올해 ‘이십만원 프로젝트’로 함께 합니다. 이 친구들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실험과 시도의 재미를 맛본 것 같습니다.

19년도 십만원 프로젝트가 처음이라 아쉬움이 많습니다. 경험한 좌충우돌을 토대 삼아 20년에는 각 짝공의 구체적 경험을 좀 더 잘 기록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도 조금 더 섬세하게 듣고 살피며 기록하려 합니다. 20년도 십만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나면 아이들이 다양한 어른, 다양한 또래 친구들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십대의 식당

2020년 마을배움터 안주인이 될 듯한 십대세프가 올해도 이어집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식당'을 정기적으로 열어볼 예정입니다. 1년간 공부하고 실험하고 나누며 마을배움터의 동력을 만들어갈 주인공들을 찾아볼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식당 연다는 소식 들으면 꼭 한번 맛보러 오세요!

마을배움동아리

학교 동아리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마저 스펙으로써 활동해야 하고, 문화예술 동아리는 기술중심으로만 운영되곤 합니다. 또래 친구가 서로를 오디션을 보는 것은 물론 학교축제에서도 줄세우기 경쟁을 합니다. 마을배움터에서 직접 동아리를 모집하고 함께 활동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며 마을배움터의 주인으로서 아이들이 활동하길 상상하고 있습니다.

예비청년(19살)

예비청년이라 부르는 18살, 19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9살. 대한민국에서 고3이라는 프레임의 강력함은 자기 존재를 더 흐릿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분명히 대학이나 취업 두 개의 선택지를 넘어 조금 더 자기 삶을 탐구해보고 싶고, 다양한 삶을 만나보고 싶은, 혹은 다른 선택지의 경험이 있다면 스스로 다른 선택을 만들어 가보고 싶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친구들을 찾아 나서보려 합니다. 유난히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19살 친구들이지만, 다양한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날 바랍니다. 예비청년을 어떻게 찾아가고 이들과 어떤 과정을 만들지 상상하고 시도 해보려 합니다.

에필로그

몇 개월의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이 변했냐고 묻는다면 글썄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배웠냐고 집요하게 물어보지 않으려 합니다.

보고서를 쓰며 정리하고, 각 짝꿍과 수다를 나누며 돌아보고, 이렇게 책으로 정리를 했지만 배움은 정리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한쪽에 둡니다.

그저 스스로 겪은 어떤 순간. 배움이 이미 내 안에 스며들지 않았을까.. 그저 ‘지금의 나’, ‘현재의 나’를 잘 알고 잘 느낄 줄 알면 되는 게 아닐까..

잘 끝났음에도 질문이 계속됩니다.

이 친구들이 스스로 만든 경험이 아이들 안에 그 무언가의 배움으로 남기 위해 우리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보태야 할까요?

부족하겠지만, 2020년 십만원 프로젝트도 그 ‘보탬’에 다가가기 위한 여정을 꾸준히 걸어 가보려 합니다.

- 십만원 프로젝트 담당자 고민정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의 새로운 이름 ‘숨’
동북권역 마을배움터는 공식적인 이름이지만
조금 딱딱하고 긴 이름이었지요?
많은 분들이 어울리는 애칭이 필요함을 제안했었고
새로운 이름을 위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선택된 이름은 ‘숨’입니다.
이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를 ‘숨’이라 불러주세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숨’

‘숨’은
좋은 것을 담고, 버릴 것을 내려놓는 들숨과 날숨이며,
‘숨’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과 변화해야 할 것의 균형을 엮은 씨줄과 날줄이며,
‘숨’은
청소년과 활동가들의 평화롭고 넉넉한 긴 호흡입니다.

발행일 | 2019년 12월

펴낸곳 | 서울특별시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73갈 31-6) / 02)6227-3600

디자인 | 최섯별, 이지성

인쇄 | 한울타리

Storytelling Book 청소년 마을배움 십만원 프로젝트 이야기편 1

_십만원 프로젝트 이야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십만원
내맘대로
썼습니다

십만원
내맘대로
썼습니다